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相奉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8131~9
本社直通@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是意自造,
非父母爲.
可勉向正,
爲福勿回.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다해도, 친척들이 이 하는 일이 어떻다해도 정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네게 짓는 행복보단 못한 것이다.

<法句經>

敎養學部 敎科課程 全面개편

76年부터 施行 18日 學處長會議 통과

週25時間, 自律學習 强化

敎養漢文·英作등 7個科目廢講

○…지난 6월30일부터 敎科課程을 심의하여 오던本校 敎科課程硏究委員會(委員長=金仁鴻敎務處長)…○○…는 1차년도 사업으로 敎養學部 敎科課程改正案을 成案, 18일 學處長會議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또한 교무처에서는 76학년도부터는 종전과달리 開講에 앞서 開學期間을 따로 設定, 그기…○○…간중에 등록, 수강신청등을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開講日부터 시작하는 講義를 받을 수없…○○…도록 하는 76년도 學事日程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개학기간은 76년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이며 개강일은 3월8일이다。

敎科課程硏究委員會(委員長=金仁鴻敎務處長)…○○…는

社說

健全한 知性의 成果

지난 2주일간은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學問的 및 體力的 兩面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커다란 행사가 많이 거행되었으며 그 모두가 학생들의 높은 知性과 건전한 行動力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었다.

첫째로 흐국단 野營大會를 시행한 것은 흐국단이 결성된후 간부급 학생들의 훈련과 團結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바, 흐국단 當局에 앞서 야영대회를 실시하여 단시일내에 훈련의 효과를 거두어 간부들의 단결력을 한층 더 굳혀 흐국단발전의 基礎를 구축하게 된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흐국단의 활동을 활발히 하여 흐국단의 발전을 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야영대회처럼 集約的으로 훈련할 수 있으며 共同運命體의 의식을 실감케하여 흐국단의 정신적기반을 굳히 하는데 효과적인 훈련은 앞으로 參加 人員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흐국단은 結成하였으나 그 정신이 아직 확고하게 서있지 않는듯 느껴지므로 앞으로 가능하면 이러한 集團훈련을 장화시켜 護國團精神의 기틀을 튼튼히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난 22일에는 흐국단員 體檢閱式을 거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정신과 인내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 검열식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학생·지도교수들이 총동원되다시피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예비훈련을 시행하고 금요일에는 本검열식을 방불케하는 예행연습까지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22일에는 自體검열식을 거행하였는데, 5일간의 예비훈련을 한 보람이 크게 발휘되어 정말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것은 特記할만하며 이것으로 흐국단이 앞날의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라 할 것이다.

護國團 검열에서 이처럼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것은 5일간이나 연습기간을 성정하여 충분히 연습을 하여 미리 착실히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有備無患이라 여기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둘째, 연습기간부터 정직 검열식날까지 학생들이 自發的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훈만 아니라, 또 지도교수들도 모두 나와서 誠意를 다하여 직접 지도하며 격려해주었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본다. 강의실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全體 敎授와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單一 목표를 향하여 힘을 합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로없었던 일이라 할 것이다.

師弟一體의 정신은 교육의 本義에 속하는 것이며, 지난 7주일동안 우리는 첫겨울의 운동장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정신을 발견할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신은 이상 흐국단은 물론 흐국단이 잘 발전하게 될 때 우리대학도 크게 발전할것이라 믿는다. 지난 19일에는 東國文學의 밤이 있었다. 東國文學은 빛나는 형사가 있었던 것이다. 東國文學에서 논부터 시작하여 흐국단의 정신적기반을 굳히고

特輯 第13回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自然科學분야 本賞受賞作

人蔘·鹿茸및 담배가 生理에 미치는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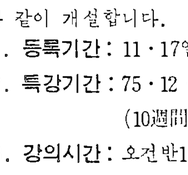
도롱뇽의 發生과

孔泰勳 <農林大敎授>

飼育期의 도롱뇽 實驗結果 통계적 分析 死亡원인 규명 흘륭

受賞者 프로필

金年洙군 <農生4>



朴光鎬군 <農生2>

6個月間 研究의 結實

담배 안피우지만 害毒에 관심

(一)序論

麝香(Antler)을 제외 한다면 人體에 대한 인삼과 담배의 효능에 관한 연구는 담편적으로보 고되고있다。그 주요한것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인삼은 「本草綱目」에 의하면 補五臟六腑(내장과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을 보하고) 久服身輕延年(오래 복용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延命)한다고 되어있고, 「大韓藥典註解」에 의하면, 强壯, 强精藥으로서 신경쇠약 또는 식욕감퇴 등에도 응용된다고 한다。

한편 孔泰勳교수는 뇌의 체중, 흉모기관, 血球, c-hondrio-me, 혈색소, cholesterol體蛋白등에 대하여 인삼이 强壯및 强精의 효용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그러나 아직 水蔘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는바 없다。

녹용의 효용에 관하여는 「本草綱目」, 또는 「大韓藥典註解」 등에는 몸이 허약하고, 사지와 腰脊이 저리고 아픈것, 또는 남자의 정력이 虛衰한 것등을 다스리고, 여자에게는 赤白帶下症을 다스리며 胎를 편히한다고 되어있다。또 「동양의학 대사전」에는 녹용은 양기를 돕고 정력을 낳게하며 血氣와 筋骨을 건전히하고 오래 복용하면 노쇠하지 않는다(久服不老)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인 결과는 임수한 바 없다。

담배는 이것을 吸煙할 때에는 肺癌(Dolf' Hill')、血壓症(Dorn' 壽命(peare) 등에 해로운 것으로 되어있다。

孔교수는 담배가 주에있어서 肝의 硅酸함유량을증가 시키고, 血色素, cholesterol' Total Protein', A/G Ratio 등에 대하여 나쁜영향을 주고있음을 지적하고있다。

특히 Lachowski는 담배연기성분분해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nicotine' Tar' Phonol' ether 不溶物및 硅素라고 지적하고있다。

요컨대 인류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물질로서 동양에서는 특히 인삼과 녹용및 담배가 주목되는 것 같다。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이 생리학적 측면에서 그 본질성을 구명하려면 일반의 동물에 대한 기초실험의 결과를 관찰할 필요가 생겨진다。

우리들은 위와 같은 물질들에 대하여 과거에는 주로 哺乳동물들을 실험재료로 하였던것을 지양하고 種的特異性(species specificity)을 고려에 넣은다음, 이번에는 중간동물인 有尾目 도롱뇽을 재료로하여 그 卵塊(5.4·1)의 孵化발생에서 부터 成體(75·7·16)에 이르기까지 107일간, 인삼, 녹용및 담배의 용액중에서 사육한 다음, 그들의 발생, 生長및 생리적변화를 관찰하였던바 몇가지의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한다。

△二△實驗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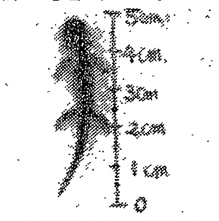
(1) 實驗動物

도롱뇽(Hynobius leechi Bo-u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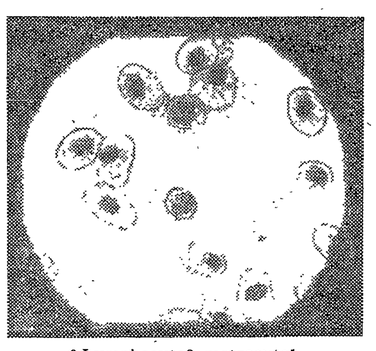
(2) 사육경위와 사육방법

75년 4월 1일 市中에서 관매하는 平壤產 도롱뇽卵塊 18덩이를 구입하여 東大 科學館 육상의 응달진 곳에 설치한 1000cc 容 水槽內에서 孵化및 사육하였다。飼育水는 뒤에 기재한바와같은 표준구, 담배, 인삼 및 鹿茸의 別定飼育水, 즉 I·II紅蔘水溶液區, 水蔘水溶液區, 水蔘水溶液區및 녹용수용액구등 6종의 사육수로 부화와사육을 하였는데 이때의 수온은섭씨 10도(4月)에서 시작하여부화시(4·12~4·19) 섭씨 22도~27도내지 30도(7월)의 室內溫度에 영향하에서 사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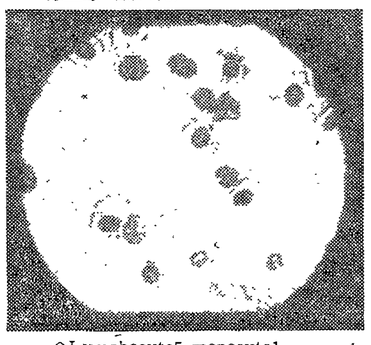
또 그 사육수는 부화직후의 먹이를 감안하여 수도물을 쓰지않고, 溫室內의 저류수를 사용하였다。또 도롱뇽의 體長이 2·0cm로 되는 때부터는 별도의 먹이에 보고한다。



◇107日令의 도롱뇽의 性體 (표준구)



◇Lymphocyte2, metrocyte1, 赤血球 (45×10)



◇Lymphocyte5, monocyte1, 赤血球 (45×10)

Table 1 사육경과와 사망율

期區分 / 각月	5月21日~30日			5月31~6月9日			6月10~19日			6月20~29日			6月30~7月9日			7月10~16日			구전체 사망율
	I			II			III			IV			V			VI			
사망율	0			5%			24%			20%			46%			13%			
구	총수	사망	사망율	총수	사망	사망율	총수	사망	사망율	총수	사망	사망율	총수	사망	사망율	총수	사망	사망율	
표준	31	0	0	31	1	3.2	30	14	46.6	16	4	25	12	5	41.7				77%
담배I	49	0	0	49	2	4.8	47	12	25.5	35	9	25.7	26	9	34.6	17	5	29.4	75%
담배II	52	0	0	52	2	3.8	50	4	8	46	4	9.1	42	17	40.5	25	1	4	53%
홍삼	68	0	0	68	4	58	64	13	20.3	51	7	13.7	44	28	63.4	16	2	12.5	79%
수삼	26	0	0	26	3	11.5	23	9	39.1	14	6	42.8	8	2	25				76%
녹용	28	0	0	28	2	7.2	26	7	26.9	19	8	42.1	11	6	54.5				82%

(VI期의 표준, 녹용구의 공란은 해부 사용한 動)

Table 2, 도롱뇽의생장속도(體長). (부화후23일) 단위cm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2.7	2.8	2.6	3	2.9	3	17
2	2.3	2.7	2.5	3	2.8	3.1	16.4
3	2.9	3.1	2.3	2.9	2.8	3	17
4	3.0	2.5	2.5	2.9	2.7	2.9	16.1
계	13.4	13.7	12.4	14.5	14	15	83
평균	2.68	★ 2.74	2.48	★ 2.90	★ 2.80	★ 3	

LSD 0.05=0.04, LSD 0.01=0.056

Table3, 도롱뇽의생장속도(體長). (부화후66일) (cm)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4.7	4.7	4.5	5	4.8	46	28.3
2	4.5	4.7	4.9	5.2	4.8	5.1	29.2
3	4.5	4.7	4.1	4.5	4.6	5	27.4
4	4.7	4.8	5	4.4	4.6	4.2	27.7
5	4.4	4.5	4.7	5	4.6	5.1	28.3
계	22.8	23.4	23.2	24.1	23.4	24	140.9
평균	4.56	4.68	4.64	4.82	4.68	4.8	

LSD 0.05=0.914

Table 4, 도롱뇽의 생장속도(체중), (부화후 28日) (gm)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0.18	0.18	0.16	0.20	0.19	0.26	
2	0.19	0.17	0.15	0.19	0.21	0.27	
3	0.17	0.19	0.17	0.19	0.18	0.25	
4	0.18	0.18	0.16	0.21	0.22	0.29	
5	0.18	0.18	0.16	0.21	0.20	0.26	
계	0.9	0.9	0.8	1	1	1.3	5.9
평균	0.16	0.18	0.16	★ 0.2계	★ 0.2	★ 0.26	

LSD 0.05=0.02

Table 5, 도롱뇽의생장속도(체중), (부화후 66日) gm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0.72	0.74	0.78	0.89	0.78	0.87	
2	0.69	0.73	0.77	0.90	0.77	0.88	
3	0.70	0.75	0.79	0.91	0.78	0.88	
4	0.70	0.7	0.78	0.90	0.79	0.89	
5	0.70	0.74	0.78	0.90	0.78	0.88	
계	3.6	3.7	3.9	4.5	3.9	4.4	24
평균	0.70	★ 0.74	★ 0.78	★ 0.9	★ 0.78	★ 0.88	

LSD 0.05=0.02

Table6, Lymphocyte의 分布數 ea/slide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29	38	29	42	41	30	209
2	28	28	22	43	29	27	177
3	27	27	27	31	42	39	193
4	24	37	23	39	30	41	194
총수	108	130	101	155	142	137	773
평균	27	32.5	25.25	★★ 38.75	★ 35.5	34.25	

LSD0.05=8.02 LSD0.01=11.0

Table7. Monocyte의 分布 ea/slide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3	2	5	9	7	4	30
2	2	5	3	9	5	5	29
3	4	2	3	6	5	6	26
4	3	4	3	8	6	4	28
총수	12	13	14	32	23	19	114
계	3	3.25	3.5	★★ 8	★★ 5.75	★ 4.75	

LSD0.05=1.70 LSD0.01=2.33

Table 8, 中性球의 分布 ea/slide

처리 / 평균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2	0	2	1	1	1	7
2	1	2	0	0	1	0	4
3	1	1	0	0	0	0	2
4	0	0	1	2	0	1	4
총	4	3	3	3	2	2	17
평균	1	0.75	0.75	0.75	0.5	0.5	

LSD 0.05=1,218

Table 9, 好酸性球의 分布 ea/slide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1	3	1	2	1	1	9
2	0	1	2	1	0	0	4
3	0	0	2	0	2	2	6
4	2	1	1	1	2	1	8
총	3	5	6	4	5	4	27
평균	0.75	1.25	1.5	1	1.25	1	

LSD0.05=1.72

Table10, 好鹽基性球의 分布 ea/slide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0	1	1	1	1	0	4
2	0	0	0	0	3	1	4
3	1	0	0	2	1	2	6
4	1	1	0	0	0	0	2
총	2	2	1	3	5	3	16
평균	0.5	0.5	0.25	0.75	1.25	0.75	

LSD0.05=1.2

Table 11, 種別 白血球의 分布의 綜合 단위 ea/slide

처리 / 백혈구	Lympho	Mono	中性	好酸性	好鹽基性	計
표준 %	108 / 83.72	12 / 9.3	4 / 3.1	3 / 2.3	2 / 1.55	129 / 100%
담배I %	130 / 84.96	13 / 8.49	3 / 1.96	5 / 3.26	2 / 1.30	153
담배II %	101 / 80.8	14 / 11.2	3 / 2.4	6 / 4.8	1 / 0.8	125
홍삼 %	155★ / 78.68	32★ / 16.44	3 / 1.52	4 / 2.03	3 / 1.52	197
수삼 %	142★ / 80.22	23★★ / 12.99	2 / 1.12	5 / 2.82	5 / 2.82	177
녹용 %	137 / 80.03	19★ / 11.51	2 / 1.21	4 / 2.42	3 / 1.81	165

各區마다 4回反復

Table 12, 赤血球의 크기의 變化(長經) (μ)

처리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4.95	±5.75	±6.45	±7.75	±6.6	±9.07	
평균	27.2	★ 28.98	★★ 36.58	27.78	26.45	27.81	

反復 : 50회, LSD 0.0=1.3

Table 13, 赤血球의 크기의 變化(短經) (u)

처리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5.45	±5.45	±4.62	±4.95	±4.9	±6.12	
평균	17.21	18.59	17.8	★ 18.95	16.03	15.92	

反復 : 50회 LSD 0.05=1.02

(三)結果와 考察

(1) 飼育成績

75·4·1 표준區, 담배I區, 담배II區, 홍삼區, 水蔘區, 녹용구등의 6개區의 환경에서 사육한 성적은 Table1 및 Fig1이 같다。

위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롱뇽의 體長이 4~5cm로 生長된 시기의 제V期(6月30~7月9日)에 가장많이 사망되고 있다。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담배I區, 즉 담배I가 有意性差로서 커지고 紅蔘區(table11)에서 동등게 됨것은 주목된다。이는 담배I區에서는 도롱뇽이 貪血증세로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14를 보면 mitochondria의 分布數는 鹿茸區에서 유독 성증가를 보여주는 등시에, 人蔘區에서도 평균상분는 많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mitochondria, glycotochrome系 지방 酸化효소등, krebscycle에 참여하는 25종의 효소들 및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細胞微粒子이며, 이것이 鹿茸區및 人蔘區에서 증가된 것은 鹿茸의 藥効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孔교수(1967)도 人蔘과 鹿茸의 藥効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롱뇽의 卵塊를 재료로 표준區, 담배I區, 담배II區, 紅蔘區, 水蔘區및 녹용區등 6개구에 나눠서 키우고 계속 사육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1) 담배II區 즉 0·0834%의 청자담배연기의 담배사육액은 도롱뇽의 부화및 飼育水槽內의 세균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2) 위 6개區水槽에 있어서 생장속도는 표준구에 비해서 人蔘區와 鹿茸區가 체중증가율이 높았다。즉 人蔘과 鹿茸의 藥効에 의한 것이 유효하였다。

(3) 人蔘區에 있어서 孔교수의 문제라고 본다。

(4) 赤血球의 크기의 변화로 보아서 사람이 담배를 1일 40개피 피우는 경우와 꼭 같은 상태의 환경에 있는 도롱뇽은 역시 빈혈증 증세를 나타낸다。人蔘과 鹿茸은 正常상태였다。

(5) 細胞內에 있어서 呼吸효소의 擔體로 되어있는 mitochondria의 分布상태로 보아서 人蔘과 鹿茸은 도롱뇽의 건실한 體質을 부여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6) 血液의 채취법

심장부위에서 직접 채취하였다。

(8) 血球의 크기의 測定法

Oculasmicrometer를 의하여 측정하였다。

(9) 白血球의 種別算定方法

白血球의 種別算定은 심장에서 취한 혈액을 슬라이드 글라스로 채혈하여 Smear method로 의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건조시키고 May-Grünwald Solution으로 염색한후 檢鏡을 하였다。

분별 백혈구의 분류방법은 Sdi-llinger교과를 채택하였다。

(10) mitochondria의分布算定法

mitochondria의 측정은 심장과 위를 적의한 내장을 화학천평으로 定量한후 10의 5제곱분의 1배의 Janus green B physiological Solution으로 염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균이 많은 飼育水의 水源은 온실의 貯溜水를 사용하였다는데에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담배의 농도가 높은 담배II區에서 가장 사망율이 높았다는 이유를 세균의 배양을 하였던바, Fig2와 같이 균의 wlony가 가장 많은 飼育液일 수록 사망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즉 飼育液의 腐敗와 사망율과는 매우 비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飼育水의 水源은 온실의 貯溜水를 사용하였다는데에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담배의 농도가 높은 담배II區에서 가장 사망율이 높았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즉 0·0834%담배수용액에서는 飼育水內의 세균들의 活性을 억제하는것 같이 보인다。

(2) 生長速度의 經過

부화한뒤 23일과 66일이 경과한 도롱뇽의 體長의 生長을 보면 table2 및 table3과 같다。

table2에서 보면 담배II區만 빼놓고는 모든 표준구에 비해서는 유의성차(L.S.D 0.1=0.056)로써 體長이 生長되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담배II區가 有意性差를 보이지 않는것은 담배의 生長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믿어진다。그러나 table3, 즉 표준區에서 66일에서는 모든 區에서 有意性差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成體의 體長을 자축 연기함을 보면 (Table4.5) 표준구보다 모두 增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망율이 비교적 높았던 人蔘區와 鹿茸區가 가장 體重이 높은 것은 (table5) 아마도 약효가 효과된 것으로 믿어진다。水槽에 담배II와 비슷한 增體를 한것은 담배의 일정농도가 菌의 발생을 억제하고 水槽의 菌이 눈의 번식을 촉진하는 현상과 견주어 볼때에 도롱뇽의 체에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밀어진다。

△三△白血球의 種別分布

血球의 種別分布의 이상은 체에서는 藥物中毒, 疾患 또는그 외부적인 상황, 異物의 侵入如否의 관정증을 하는데 있어서 나의 측정근거로 삼는다。

table (6, 7, 8, 9, 10, 11)에서 table6 과 7은 單球(monocyte)와 림프球(Lymphocyte)에 있어서 人蔘區와 鹿茸區가 有意性差로써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림프球가 증가되는것은 인체에서는 소아시, T.B炎症 임경우이고, 單球가 증가되는 것은 T.B.편의 치번보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번의 도롱뇽의 경우는 飼育水에의 세균의 침입이 그 원인이 된것으로 믿어진다。

孔교수(1967)는 인삼을 급여한 쥐에 있어서 好鹽基性球와 中性球만이 증가됨을 보였으나 도롱뇽의 경우는 種的인 特異性이 있는것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4△赤血球의 크기

赤血球의 크기는 Species에 따라서 한간의 차이를 가진다。

또 大赤血球와 小赤血球의 分布는 種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도롱뇽의 경우는 table 12, 13과 같이 크기와 大·小 赤血球의 混合間隙이 크게 달랐다。예를들면 人類는 6·6um~7·9um 고양이 5·7~6·3um 닭 12·2~6·8um 등으로 되어 있지만 도롱뇽은 長經 27~36um, 短經 15·92~18·95um로써 거의 4~5배의 크기로 되어있다。특히 담배II區에서 커지고 紅蔘區(table11)에서 동등게 됨것은 주목된다。이는 담배에서는 도롱뇽이 貪血증세로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Mitochondria의分布

Table14를 보면 mitochondria의 分布數는 鹿茸區에서 유독 성증가를 보여주는 등시에, 人蔘區에서도 평균상분는 많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mitochondria, glycotochrome系 지방 酸化효소등, krebscycle에 참여하는 25종의 효소들 및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細胞微粒子이며, 이것이 鹿茸區및 人蔘區에서 증가된 것은 鹿茸의 藥効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孔교수(1967)도 人蔘과 鹿茸의 藥効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롱뇽의 卵塊를 재료로 표준區, 담배I區, 담배II區, 紅蔘區, 水蔘區및 녹용區등 6개구에 나눠서 키우고 계속 사육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실험결과를 얻었다。

(1) 담배II區 즉 0·0834%의 청자담배연기의 담배사육액은 도롱뇽의 부화및 飼育水槽內의 세균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2) 위 6개區水槽에 있어서 생장속도는 표준구에 비해서 人蔘區와 鹿茸區가 체중증가율이 높았다。즉 人蔘과 鹿茸의 藥効에 의한 것이 유효하였다。

(3) 人蔘區에 있어서 림프球의 문제라고 본다。

(4) 赤血球의 크기의 변화로 보아서 사람이 담배를 1일 40개피 피우는 경우와 꼭 같은 상태의 환경에 있는 도롱뇽은 역시 빈혈증 증세를 나타낸다。人蔘과 鹿茸은 正常상태였다。

(5) 細胞內에 있어서 呼吸효소의 擔體로 되어있는 mitochondria의 分布상태로 보아서 人蔘과 鹿茸은 도롱뇽의 건실한 體質을 부여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Table14, mitochondria의 分布 ea/입방mm

처리 / 반복	표준	담배I	담배II	홍삼	수삼	녹용	계
1	9,964,755	9,749,755	13,808,036	9,745,749	12,030,619	20,325,456	
2	8,843,019	7,487,588	10,693,883	8,891,761	15,190,175	10,488,232	
3	7,300,632	6,588,196	6,926,720	14,372,243	12,970,073	10,950,280	
4	7,972,338	6,730,416	4,557,053	9,062,024	8,431,716	12,164,325	
계	34,080,744	30,555,955	35,985,692	42,071,824	48,622,583	60,928,293	252,245,096
평균	8,520,186	7,638,989	8,996,423	10,519,956	12,155,646	★ 15,232,073	

LSD0.05=6,287,900

△四△要約

담배의 직접적인 해독은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주위에 있는 生物體가 받는 영향에관해 관심을 가지게된 것이 「인삼, 녹용및 담배가 도롱뇽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라는데, 특히 두 사람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담배 연구제목에는 도롱뇽의 혈액상태, 즉 赤血球의 크기의 변화로 보아서 사람이 담배를 1일 40개피 피우는 경우와 꼭 같은 상태의 환경에 있는 도롱뇽은 역시 빈혈증 증세를 나타낸다。人蔘과 鹿茸은 도롱뇽의 건실한 體質을 부여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東國大學校同門들께

삼가 아뢰옵니다.

東國人 相互間의 友誼增進을 위해 努力해온 本會에서는 多事多難했던 乙卯年을 보내면서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겸 東國을 빛내준 同門祝賀會및 送年會를 개최하오니 同門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日時: 1975年12月17日(水) 오후 6時30分
場所: 世宗호텔 해금강홀
會費: 2,000원
案件: •모교 개교 70주년 기념사업
△東國을 빛내준 同門에게 축하패 증정
△送年宴會
△行運券추첨

1975年 12月 日

東國大學校
同窓會長 崔載九

개강12月1日
수시접수 새벽·오전 오후·저녁

留學班 會話班 英作文 英文解釋 三位一體 考試英語 時事英語 文法및解釋 編入英語 TOEFL DIGEST TIME AFKN Word Power Vocabulary 國史 時事論文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다이제스트 日語會話
獨語文法 獨文解釋
72 9226 74 2442 74 0483
종로2가태극당옆삼화고속뒤
시사영어학원

무엇이든 도와 드립니다.
학위논문 프린트 고급인쇄 페난트 실크인쇄 상패 기타일절
代表 朴喜甲
한국문예사
종로구 관수동 (국일관앞왕자다방4층)
21 5451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신예용안과 1층 3·1빌딩광고中間 전화: 74-5559

냉동 기술은 역시 미동냉동학원!
□한국최초에 설립된 전통있는 학원
□정규반…5개월 □단기반…3개월
□개인반…1개월
☆국가 자격증 취득 취업 희망자및 기술향업대자
25 4654
개강: 12월 1일(세기극장앞)
미동냉동학원

東大生 特別敎育 (수강료·환입우대함) 여타자—여비서—여사무 양성전문기관
세종타자학원
사회직업교육전문학교 —수시입학—
21 4275 21 4611
종로3가네거리지하철입구(단성사앞)

육·군·海·軍 행정지원병 모집
※육군: 만17세~25세, 채용·순직시험에 전수가 산해택
※해군: 만17세~22세까지 교육·학력·경력·수학자 복무년한 4년
※대입형: 행정병 교육후 각군 단대 근무년한 일반병과 등인함
유니온 타자학원 73 4079 75 9716

週刊朝鮮 報道·解說·評論

아르바이트
이력서 지참 면담 바람
명하 문화사 53 8995
한일은행 해동한의원 창신동지점~신설동쪽20m

AFKN
정취반 방학특강
A·L·C(AFKN Listeners' Club)에서는 회원 및 일반 대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1. 등록기간: 11·17일부터~12·10일까지
2. 특강기간: 75·12·15일부터~76·2·20일 (10週間)
3. 강의시간: 오전반12시~13시20분(80分) 오후반3시30분~4시50분(80分)
4. 강의교재: 목, 금, 토, 일 News(밤11시)
5. 특 전: ① 라디오 Drama Script무료제공 ② A·L·C 회원에게는 수강료 10%할인
6. 장 소: 종로2가 삼화고속뒤 72 9226 74 2442
7. 강 사: 김철호선생
時事英語学院

特輯 第13回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人文社會 科學分野 獎勵賞

農業資源 開發의 必要性과 展望

李錫佑 〈農林大·農經〉

I. 序論

이 地球上에서는 쉬지 않고 增加하는 人口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問題가 人口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必須不可缺한 食糧과 에너지 資源의 確保라는데 있는 것이다.

現在와같은 人口增加의 趨勢가 지속된다면 30年後의 全世界人口는 現在의 倍가 넘는 60~70億이 되리라고 추정되고있다. 이러한 結果는 全人類를 食糧不足의 위기에 봉착케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게다가 人口問題를 연구하는 學者들에 의하면 地球上에서 耕作이 가능한 모든 土地가 완전히 개발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生産되는 農産物로는 날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能力이 30년 이전에 이미 限界點에 도달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계속 人口膨脹은 가속화되고 食糧增産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한 世界的으로 겪어야 할 食糧問題의 深刻性은 상상만해도 무서울 정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低開發國들은 食糧危機에 處해있고 低所得國임으로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農業國家이면서도 지금까지 食糧自給을 實現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오랫동안의 농업발전에 대해 부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던데 있다.

이러한점을 감안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농업자원 자발이 국가적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고찰하고 저한다. 그간에 개발한 농업자원이 앞서 발달한 타산업과 더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점을 인식하면서 70년대이후의 農業開發戰略을 더욱 발전시켜서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국내 供給을 충당하는데 더많은 힘을 기울여야할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1. 國際的 背景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一次産業에서 二次, 二次産業에서 三次産業로 옮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페티」①는 갈파하였다.

이러한 思想的 背景은 근후 近代化를 念願하던 世界各國이 經濟政策을 수행하는데 至大한 影響을 미쳤으며 그 結果 商工業 즉 2次産業이나 3次産業에 注力하는 것이 곧 經濟發展이라고 判斷한 나머지 1次産業인 농업부문에 대한 관심이 도외시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선진제국들은 自國의 商品販賣를 위하여 自國에 유리한 상품은 專門化하고 불리한 상품은 타국으로 부터 수입해 오는 것이 各國의 利益과 國際分業의 이익을 얻기 위해 必要하다는 「比較生産費說」②에 의하여 선진제국들로 부터 잉여농산물원조및 貿易輸入農産物등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저개발국은 「幼稚産業部門」③의발전을 등한시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요인은 농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 農業의 발전을 더욱더딘 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農工間의 不均衡 成長을 초래했던 것이다.④

이와같은 世界的 배경속에서 1972년부터 中東의 産油國들이 石油를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세계적인 資源戰爭및 「資源民族主義」⑤를 觸發시켰으며 이에따라 세계식량의 主生産國인 美國과 캐나다등이 食糧武器化를 선언함 등한 움직임으로 또하나의 資源戰爭이 발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自國의 생산량만으로는 도저히 自給이 불가능하여 他國으로 부터 輸入에 의존해 오던 低開發國들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19世紀 英國의 「自由貿易政策」⑥의 理論的 推進力이 되었던 比較生産費說은 오늘날 그 빛을 잃고 말았으며 不安定한 海外市場에 의존하지않고 安全하게 自給하려는 意圖아래 行政力의 强力한 뒷바침을 必要로 하는 「保護貿易政策」⑦이 全世界 各國의 經濟政策및 貿易政策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註】 1) 17世紀 英國의 W. Petty교수가 처음 나타내준 되었다

또한 食糧供給의 海外依存度는 30%이다.

〈表3〉은 지난 數年間의 穀物生産量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主穀인 쌀의 生産量이 점점 增加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경지면적의 확충에다 「多收稙種」⑥인 統一벼의 보급등 米作의 生産技術이 向上되어 왔기때문이다.

그 結果 쌀의 反當 수확량은 日本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경작기술의 향상이 不渡한데다 農政當局의 무관심속에 단편적 增産만을 期待하고 自然食品을 嗜好하려는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그 實績이 매년 증가하여 1973년에는 1972년보다 3倍가량 增加한 3백36만5천톤을 輸出하였다.

4. 特用作物類=「供給不足用」의 輸出채권을 가진 인삼류 수출은 東南亞地域에서 가공품 완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農産物 輸出額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生絲는 일본의 수요증가에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73년도 수출액은 72,260千달러로 總農産物수출의 약13%를차지했다.

한편 美國을 主市場으로 최대의 수요처로 하는 우리나라는 國內 生産費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을 포함한 대부분의 農産物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食糧武器化에 영향을 입을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도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하여 부족한 農産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농업이외의 他産業, 주로 工業發展에만 注力하여온결과 농민들의 생활및 농촌의 발전이 잠국으로 느뉘다.

〈表1〉과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3년도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량은 1,246만톤인데 전년도 이월 양곡량 209만8천톤을 합계한 국내조달량 총공급량은 904만톤이므로 자급율은 약70%이다.

또한 食糧供給의 海外依存度는 30%이다.

〈表3〉은 지난 數年間의 穀物生産量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主穀인 쌀의 生産量이 점점 增加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경지면적의 확충에다 「多收稙種」⑥인 統一벼의 보급등 米作의 生産技術이 向上되어 왔기때문이다.

그 結果 쌀의 反當 수확량은 日本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경작기술의 향상이 不渡한데다 農政當局의 무관심속에 단편적 增産만을 期待하고 自然食品을 嗜好하려는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그 實績이 매년 증가하여 1973년에는 1972년보다 3倍가량 增加한 3백36만5천톤을 輸出하였다.

4. 特用作物類=「供給不足用」의 輸出채권을 가진 인삼류 수출은 東南亞地域에서 가공품 완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農産物 輸出額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生絲는 일본의 수요증가에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73년도 수출액은 72,260千달러로 總農産物수출의 약13%를차지했다.

한편 美國을 主市場으로 최대의 수요처로 하는 우리나라는 國內 生産費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을 포함한 대부분의 農産物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食糧武器化에 영향을 입을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도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하여 부족한 農産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농업이외의 他産業, 주로 工業發展에만 注力하여온결과 농민들의 생활및 농촌의 발전이 잠국으로 느뉘다.

補助食糧에는 自然草資源을 飼料로 하는 소, 羊, 염소, 토끼등이 있으며 作物로서는 콩, 고구마, 감자등이 있다. 따라서 農政當局은 콩작이나 天災地變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補助食糧의 개발에 아낌없는 政策的 支持를 바란다.

III. 國內需要農産物開發

1. 糧穀

양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主穀인 쌀과 보리 그리고 콩, 감자, 고구마, 등의 잡곡으로 나뉜다.

〈表1〉과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3년도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량은 1,246만톤인데 전년도 이월 양곡량 209만8천톤을 합계한 국내조달량 총공급량은 904만톤이므로 자급율은 약70%이다.

〈表3〉은 지난 數年間의 穀物生産量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主穀인 쌀의 生産量이 점점 增加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경지면적의 확충에다 「多收稙種」⑥인 統一벼의 보급등 米作의 生産技術이 向上되어 왔기때문이다.

그 結果 쌀의 反當 수확량은 日本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경작기술의 향상이 不渡한데다 農政當局의 무관심속에 단편적 增産만을 期待하고 自然食品을 嗜好하려는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그 實績이 매년 증가하여 1973년에는 1972년보다 3倍가량 增加한 3백36만5천톤을 輸出하였다.

4. 特用作物類=「供給不足用」의 輸出채권을 가진 인삼류 수출은 東南亞地域에서 가공품 완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農産物 輸出額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生絲는 일본의 수요증가에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73년도 수출액은 72,260千달러로 總農産物수출의 약13%를차지했다.

한편 美國을 主市場으로 최대의 수요처로 하는 우리나라는 國內 生産費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을 포함한 대부분의 農産物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食糧武器化에 영향을 입을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도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하여 부족한 農産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농업이외의 他産業, 주로 工業發展에만 注力하여온결과 농민들의 생활및 농촌의 발전이 잠국으로 느뉘다.

補助食糧에는 自然草資源을 飼料로 하는 소, 羊, 염소, 토끼등이 있으며 作物로서는 콩, 고구마, 감자등이 있다. 따라서 農政當局은 콩작이나 天災地變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補助食糧의 개발에 아낌없는 政策的 支持를 바란다.

1. 糧穀

양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主穀인 쌀과 보리 그리고 콩, 감자, 고구마, 등의 잡곡으로 나뉜다.

〈表1〉과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3년도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량은 1,246만톤인데 전년도 이월 양곡량 209만8천톤을 합계한 국내조달량 총공급량은 904만톤이므로 자급율은 약70%이다.

〈表3〉은 지난 數年間의 穀物生産量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主穀인 쌀의 生産量이 점점 增加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경지면적의 확충에다 「多收稙種」⑥인 統一벼의 보급등 米作의 生産技術이 向上되어 왔기때문이다.

그 結果 쌀의 反當 수확량은 日本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경작기술의 향상이 不渡한데다 農政當局의 무관심속에 단편적 增産만을 期待하고 自然食品을 嗜好하려는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그 實績이 매년 증가하여 1973년에는 1972년보다 3倍가량 增加한 3백36만5천톤을 輸出하였다.

4. 特用作物類=「供給不足用」의 輸出채권을 가진 인삼류 수출은 東南亞地域에서 가공품 완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農産物 輸出額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生絲는 일본의 수요증가에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73년도 수출액은 72,260千달러로 總農産物수출의 약13%를차지했다.

한편 美國을 主市場으로 최대의 수요처로 하는 우리나라는 國內 生産費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을 포함한 대부분의 農産物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食糧武器化에 영향을 입을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도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하여 부족한 農産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농업이외의 他産業, 주로 工業發展에만 注力하여온결과 농민들의 생활및 농촌의 발전이 잠국으로 느뉘다.

補助食糧에는 自然草資源을 飼料로 하는 소, 羊, 염소, 토끼등이 있으며 作物로서는 콩, 고구마, 감자등이 있다. 따라서 農政當局은 콩작이나 天災地變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補助食糧의 개발에 아낌없는 政策的 支持를 바란다.

2. 國內的 背景

다년간 우리나라는 國內 生産費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을 포함한 대부분의 農産物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食糧武器化에 영향을 입을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도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하여 부족한 農産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농업이외의 他産業, 주로 工業發展에만 注力하여온결과 농민들의 생활및 농촌의 발전이 잠국으로 느뉘다.

補助食糧에는 自然草資源을 飼料로 하는 소, 羊, 염소, 토끼등이 있으며 作物로서는 콩, 고구마, 감자등이 있다. 따라서 農政當局은 콩작이나 天災地變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補助食糧의 개발에 아낌없는 政策的 支持를 바란다.

III. 國內需要農産物開發

1. 糧穀

양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主穀인 쌀과 보리 그리고 콩, 감자, 고구마, 등의 잡곡으로 나뉜다.

〈表1〉과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3년도 우리나라의 양곡총수요량은 1,246만톤인데 전년도 이월 양곡량 209만8천톤을 합계한 국내조달량 총공급량은 904만톤이므로 자급율은 약70%이다.

〈表3〉은 지난 數年間의 穀物生産量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主穀인 쌀의 生産量이 점점 增加하고 있는데 그 原因은 경지면적의 확충에다 「多收稙種」⑥인 統一벼의 보급등 米作의 生産技術이 向上되어 왔기때문이다.

그 結果 쌀의 反當 수확량은 日本의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경작기술의 향상이 不渡한데다 農政當局의 무관심속에 단편적 增産만을 期待하고 自然食品을 嗜好하려는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그 實績이 매년 증가하여 1973년에는 1972년보다 3倍가량 增加한 3백36만5천톤을 輸出하였다.

4. 特用作物類=「供給不足用」의 輸出채권을 가진 인삼류 수출은 東南亞地域에서 가공품 완제품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農産物 輸出額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生絲는 일본의 수요증가에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73년도 수출액은 72,260千달러로 總農産物수출의 약13%를차지했다.

한편 美國을 主市場으로 최대의 수요처로 하는 우리나라는 國內 生産費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充足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食糧을 포함한 대부분의 農産物을 外國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食糧武器化에 영향을 입을 나라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도 比較生産費說에 입각하여 부족한 農産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농업이외의 他産業, 주로 工業發展에만 注力하여온결과 농민들의 생활및 농촌의 발전이 잠국으로 느뉘다.

補助食糧에는 自然草資源을 飼料로 하는 소, 羊, 염소, 토끼등이 있으며 作物로서는 콩, 고구마, 감자등이 있다. 따라서 農政當局은 콩작이나 天災地變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補助食糧의 개발에 아낌없는 政策的 支持를 바란다.

2. 輸入代替原料農産物

1973年度의 農産物 輸入은 農産物 全般에 걸친 輸入價格의 昂騰으로 지난해 實績 68만달러를 70.9%나 上廻하는 116만3천달러를 記錄하고 있다.

즉 1973年度中에는 全世界에걸친 食糧波動으로 農産物의 국제가격이 크게 騰貴함으로써 輸入物量은 前年度의 비슷하였으나 輸入額은 크게 늘어났다. 主要品目別 農産物 輸入狀況을 보면 〈表4〉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穀類: 食糧不足을 打開하고자 1973년에는 穀類輸入이 45.5, 244만2천달러로 穀類産物 輸入額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이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米穀으로 7천7백96만5천달러, 옥수수 4천1백27만2천달러의 순으로 되어있다.

政府施策에 의한 혼분식장려및 米穀消費抑制策으로 米穀의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된 반면 大麥및 小麥의 수입은 2배이상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2. 林産物類=穀物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林産物은 1973년에 3억3천8백44만4천달러를 輸入하여 1972년도의 1억5천5백21만7천달러를 크게 上廻하는 가운데 임산물 수입의 대부분은 合板用材로 쓰이는 原木輸入에 3억7백55만8천달러, 自然고무의 수입이 2천50만1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3. 加工品類=설탕類및 原綿의 輸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農産物 加工品의 輸入은 2억6천5백75만3천달러에 달하였는데 이가운데서 설탕類가 7천4백34만8천달러로 原綿이 1억1천2백42만6천달러로 42.3%를차지하고있다.

4. 畜産物類=毛織物의 原料인 洋毛 畜産品用의 牛皮 馬皮가 2천22만3천달러로 쇠고기의 代替用으로 그需要가 급증하고 있는 洋肉이 8백99만

國際競爭·國內供給 增大 진력
資源開發、食糧問題 해결
畜産物·水産物開發도 食糧難克服

李錫佑 〈農林大·農經〉

〈表1. 73년도 양곡 수요동향〉

수요의 用途		수요량(만톤)
순식량	농가 식량	348.6
	비농가 식량	371.3
가공용, 종업용		160.0
사 료 용		73.2
기 타		292.9
합 계		1,246.0

2) 還水用, 종자용, 소비대체용 포함
資料: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74

〈表2. '73年度 식량 공급량〉

区 分	공급량(만톤)
쌀	395.4
보 리	177.9
豆 類	67.9
옥 수 수	5.4
기 타	49.0
도 입 량	342.0
전년도 이월량	209.8
합 계	1,246.0

資料: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74.

〈表4. 주요농산물 수입 실적〉 단위: 천불

품목	'72年	'73年	주요수입 상대국
미 곡	101,805	77,876	일본, 미국, 대만
대 맥	21,329	53,091	카나다, 미국, 호주
소 맥	128,127	256,621	미국, 카나다, 호주
옥수수	22,913	41,272	미국 일본
합판용재	139,291	307,552	인도, 말레시아
천연고무	13,701	25,501	대만, 싱가포르, 말레
설탕류	42,117	174,342	불불, 미국, 카나다
원 면	84,787	112,426	심가폴, 말레시
양 모	16,380	32,321	호주, 뉴우질란드
우마피	8,676	20,233	미국, 카나다, 영국
양 육	2,294	8,983	호주, 뉴우질란드
우 지	16,067	27,422	미국, 뉴우질란드, 일본
배합사료	1,505	1,252	미국, 일본

資料: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74

〈表5〉 주요 농산물 수출 실적 단위: 천불

품목	'72	'73	주요수출 상대국
돈육	5,662	3,886	일본, 홍콩
조도서어	116,445	16,895	일본, 대만
생들어	18,024	27,095	일본, 미국, 트랑스
참치	68,032	97,748	미국, 일본
사 과	1,283	1,189	필리핀, 싱가폴
버섯	1,085	3,260	일본, 미국, 홍콩, 서독
인삼	8,080	13,035	일본, 홍콩, 싱가폴
한약재	5,401	8,277	일본, 홍콩, 대만
생사	52,366	72,260	일본, 미국, 인도, 대만
합 판	163,435	172,138	미국, 일본, 카나다
갈탄벽지	45,286	6,258	미국, 일본, 서독, 화란
연연초	12,618	22,442	대만, 소웨덴, 서독, 미국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74

※〈表3〉은 생략

「高米價政策」實施로 生産意慾 자극해야
營農技術의 向上과 指導에도 注力
農産物輸出 장려위해 基盤造成 시급

食糧自給策

V. 結論

우리나라는 農業국가이면서도 他産業의 발전에만 집중하던중 농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업부문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이제 농업개발의 과제로서는

첫째 食糧자급의 일환으로 「高米價政策」⑫을 농업인에 하여 농민들에게 식량생산의 의욕을 刺戟하고

둘째 營農 기술의 향상과 지도에 주력하여야 하며

셋째 都市化와 工業化에의해서 잠식되지 않도록 「絶對農地」⑬를 확보할 것이며

넷째 金肥의 사용으로 地力이 나빠진 토양을 堆肥의 집중시비로 土地를 비옥화하게 하고

다섯째 全天候農業을 감당할수 있도록 農業基盤을 계속 조성하는 것이 食糧自給을 앞당길수 있는 길이라생각한다.

또한편 農業資源을 계속開發하여 輸入에 의존하던 農産物도 國內의 조달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은 물론 有望輸出 農産物에대한 지속적인 장려책으로써는 輸出生産團地의 造成 流通構造의 改善을 통한 原價切減.

세째 農産物의 生産費 인하와 原料蒐集의 원활화.

네째 海外市場 情報網의 확대등을 들 수 있다.

그간 우리는 농산물에만 치중해서 國民食糧問題를 해결하여 왔기 때문에 은갖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다고 본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農産物과 병행해서 제2의 식량이며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영양을 보급하고 있는 畜産物과 水産物의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식량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얻어지는 것인가를 알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農産物의 貿易收支를 改善하기위한 最善의 方策으로서는

①장려한 종산책과 소비절약을통하여 食糧自給度를 향상시킴으로써 穀導入으로 인한 外貨절약이 시급하고

②原木의 연가조달및 새로운 海外市場 (林野) 開發을 위하여 海外經濟協力增强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③現在 3천달러의 실적을 보인 畜産物의 輸入은 7천9백86만3천달러에 이르러 1972년도보다 126.0%가 늘어났다.

그밖에 特用作物, 園藝作物등은 國內生産이 가능하므로 각각 1천9백60만1천달러, 2백45만1천달러의 소규모의 輸入實績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보바와 같이 農産物의 輸入으로 인한 外貨負擔을 얼마나 줄일

特輯 第13回 本社學術賞入賞作品 特輯

人文社會科學分野 奬勵賞

憲法上의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問題 관견

李龍旭 〈法政大·政外3〉

法治主義 近代民主主義의 基本原理

支配·服從따른 行政關係

自由와 權利保障問題 관건

第一章 特別權力關係의意義

1、特別權力關係란 특별한 目的에 의하여 公法上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包括的으로 當事者의 일방이 그 相對者를 지배하고 그 상대자는 이에 服從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 當事者間의 行政法關係이다。(註1)

特別權力關係의 理論은 원래 獨逸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公務員關係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部分社會에서는 그 질서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法律關係가 존재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범위내에서 排除된다고 생각되었다。國法의 적용이 요컨대 이러한 사고방식은 特別權力關係를 一般權力關係에대한 관념으로 이해함으로써 「法律에의한 行政의 原則」과 「行政에대한 裁判的 統制」를 내용으로 하는 法治主義原則의 排除내지는 變質을 인정한다。

2、近代立憲主義 憲法의 歷史的性質과 由來에 비추어 볼때 國家權力이 국민의 自由와 權利를 제한하려면 특히 憲法이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도록 하는 基本權尊重主義에 입각하고 있으며 국가의 公權力행사는 法에 羈束되어야 하며 行政法關係에서 行政主體의 公權的行爲는 법률의 授權을 요할뿐 아니라 법률에 위배된 行政主體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司法審査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憲法이 그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特別權力關係에 의거하여 포괄적인 支配權을 행하여 국민에게 命令·强制를 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실로 이러한 현상은 法治主義에 대한 중대한 侵害라 보지 않을수 없다。

3、그럼으로 本論文의 서술방법은 전통적인 特別權力關係理論을 철명하고 그 변천과정및 우리나라의 관계를 통하여 基本權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논하여야 할것이나 지면관계상 後者에 중점을 두고 論하고자 한다。

第二章 特別權力關係에있어서의 基本權保障에 관한 傾向

1、序

特別權力關係를 승인하는 學說과 그것을 否認하는 學說이 對立되는 가운데 첫째 特別權力關係의 복종자에게 이른바 特別한 權力에의하여 法上 보장된 基本權을 제한할수 있는가? 둘째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基本權보장의문제의 일환으로 特別權力에 의하여 침해된 자유와 權利는 司法的救濟가 가능한가 하는것이다。

2、特別權力關係에있어서의 獨逸에서의 제2차대전이전 이른바 토마(Thoma)의 이론을 보면 ① 예외없이 어떠한 權利關係에도 보장되는 일반적으로 강화된 基本權, 예컨데 信敎및 양심의 자유 ②특정의 예외를 留保하나 원칙적으로서 어떠한 權力關係에도 미치는 基本權 ③ 특정의 權力關係에만 보장되는 특수적으로 강화된 基本權 ④一般權力關係에서만 타당한 基本權으로 그것이 特別權力關係에서는 어느 한도의 제한을 받게 되는가를 論하였다。그러나 通說的 見解는 基本權은 一般權力關係만을 지속하고있다는 해석論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2차대전이후 Bonn基本法上의 基本權은 모든 人間共同社會의 平和및 正義의 기초로서의 不可侵하고, 不可讓한人權의 현실화이고 구체화이다。基本法이 규정한 基本權은 「직접타당하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권및 재판을 구속」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基本權은 그 본질적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러나 통설은 特別權力關係에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基本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다음으로 日本에서는 독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基本權도 점차 一般權力관계에서의 기본권과 다름없이 保障하려는 경향이 길어지고있다。英·美에서는 獨逸式 특별권력관계란 觀念은 없다。英·美에서는 「일정한 公法上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一方이 他方을 支配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할것」을 내용으로하는 獨逸式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은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물론 英·美에서도 公務員관계, 國公立學生관계, 受刑者관계등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보다 많이 특별한 服從義務를 지우고 있어서 그러할뿐 法治行政의 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이다。

第三章 우리나라憲法을中心으로한特別權力關係理論의構成問題

1、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憲法이 특별한 경우를 예상하여 國會制定法에 의하지 아니할수가 있다고 하는 예외를 憲法이 認定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회가 특정한 法律에 의하도록하는 法治主義는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基本原理이다。만약 憲法이 기본권제한의 예외로서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을 적용하여 包括的 지배권에 의한 命令强制를 국민에게가 할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로 法治主義原則의 중대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보지않을수 없다。이에 대하여 일부의 學者는(註2) 특별권력관계는 포괄적인 지배권에 있고 또 포괄적 지배권이 법치주의원칙에 의하지 않는 권력발동을 의미하는 것일을 명백히 하였다。그러나 특별권력관계의 발생을 인정하는 法律의 根據가 있고, 그法律이 規定한 法律事實이 발생함으로써 개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이러한 권력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 특별권력관계에 의하여 違成하려는 行政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의 자유의 제한은 비록 그에대한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法律의 근거가 있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法治主義原則에 모순됨이 아니다。

또 개인의 任意的 同意에 의하여 이러한 特別權力관계가 形成되는 경우도 특수한 行政領域內의 자유의 제한이 역시 法治主義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오컨데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포괄적 支配權도 공목적으로는 法治主義를 個別的의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同時에 同法 第32條 第1項에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 理由로 規定하여 自由이고 그外의 영역에 있어서는 不自由라고하는 특일적인 관료적인 思考方式을 배격하고 오히려 法律이 規定한 事項에 관해서만 不自由이고 그의 영역은 自由라고 하는 英·美式사고방식을 採擇하였다고 보는점。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한 절서유지 또는 公共福利를 위해서라면 法律에의하여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의 制限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基本權이 相對的의 基本權으로 轉化하였다는 점。(異說있음) (註4)

憲法 第32條第2項의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라고 할때 自由와 權利의 主體가 「모든國民」이지 國家의 特別한 관계에 있는자를 제외하지않고 있는점。

特히 우리憲法은 國民의 平等權(憲法 第9條1項2項) 과 아울러 國民의 의 基本權保障에 대한 國家의義務를 천명하고 (헌법第8條) 國民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憲法第24條1項) 있는 취지에 볼때에도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區分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겠고 軍法會議를 規定한 憲法第108條, 第24條2項, 公務員인근로자의 勞動三權을 制限한 第29條2項, 大法院의 規則制度權을 規定한 第106條등을 고려하면 헌법이 이러한 例外를 特別히 두지 아니한 限 特別權力關係의 일의적인 용인될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따라서 우리헌법 第2章의 基本權의 規定은 일반국민만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國家公務員인 國民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그러나 國家公務員인 國民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의 憲法上의 權利를 가진다고 하는것은 결코 그것이 절대로 不可侵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어떠한 절서유지와 公共福利를 위해서 制限할수가 있다。(基本權中에는 절대불가침이며 公共福利와 합치라도 制限할 수 없는것도 있다는 反對說이 있다)

國家公務員인 國民의 權利의 제한에는 반드시 法律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여기에 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국민의 自由의 權利의 制限의 근거인 法規는 막연하고 불명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例컨데 國公務員法 第57條와 같은 막연한 규정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다。만일 國家公務員은 同法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職務命令에 복종할의무가 있으므로 職務의 성질상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모두 職務命令으로써 指定하면 된다는 것이 허용된다면 法治行政의 原則이라는것이 有名無實하게 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그와반면 國家公務員法이 定한 영리업무및 겸직의 금지(同法第64條) 나 政治活動의 禁止(同法第65條)의 規定도 직무명령으로 하면되는 것이지 구태여 法律自體에서 따로 定할 필요가 없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③、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同意와 法治主義。

國家公務員關係의 성질이 同意에의하는 경우 그 同意는 法治主義의 근거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法治主義의 適用이 배제된다는 理論이 우리憲法上 許容되는 것인가?(註5)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公務員關係는 본인의 同意에 基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義務를 부담하는 것도 이상 여러가지 要件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法律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法律의 근거를 要하지 않는다고 한다。다시 말하면 당초의 同意가 적용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法治主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同意의 성질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이와같이 헌법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국가化하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봉사자로서 수행하게 함이다。

로써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있다。日本의 宮井力教授는 그의 「特別權力關係의 問題」는 공무원의 구태여 政治活動의 特別權力關係에서 공무원의 체한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함이다。

이와같이 헌법이 공무원의 규정하도록하고 있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政治活動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국가化하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함이다。

이와같이 헌법이 공무원의 규정하도록하고 있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政治活動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국가化하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함이다。

더등헌법으로 규정하도록하고 있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政治活動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국가化하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함이다。

이와같이 헌법이 공무원의 규정하도록하고 있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政治活動을 제한하는 이유는 정부국가化하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함이다。

第四章 結論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독일식 관념으로서의 法治主義를 배제하는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성립될수 없다。

독일의 특별권력관계는 상대적구별설에 입각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다른편으로는 특별권력관계의 일반권력관계와 마찬가지로 法原理를 인정하려는 우리헌법의 취지나 기본권보장의 정신에도 합당한 견해라고 하겠다。

③受刑者 수감자의 국가의 營造物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는 法律上 營造物의 이용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일종인데 일부의 재판생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생관계는 국공립학교의 재학생관계와 공무원관계나 행정자의 교도소 수용관계 하면서도 수용자의 교도소 수용관계만은 국가의 특절적인 공권의 발동관계라 하고있다。

第四章 結論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독일식 관념으로서의 法治主義를 배제하는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성립될수 없다。

독일의 특별권력관계는 상대적구별설에 입각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한편 다른편으로는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는자 있어서의 행위가 행정소송의대상이 된다고 함은 상당한 모순이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포괄적 支配權도 공목적으로는 法治主義原則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前보다 앞서가는 이론이기는 하다。그러나 우리헌법과의 관계에서 볼때 一般權力關係外에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려한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우리헌법은 國民의 基本權으로서 재판청구권(헌법제24조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公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한 訴訟을 行政訴訟의 제기를 인정하려는 二分論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權力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가능한한 法治主義原則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前보다 앞서가는 이론이기는 하다。그러나 우리헌법과의 관계에서 볼때 一般權力關係外에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려한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우리헌법은 國民의 基本權으로서 재판청구권(헌법제24조1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公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한 訴訟을 行政訴訟의 제기를 인정하려는 二分論은 특별권력

特輯 第13回 本社學術賞 入賞作品 特輯

創作文學分野 奬勵賞 受賞作

序紙

□短篇小說

黃仁得
〈文理大國文科3年〉

햇빛은 어디까지나 도달한다。그럴테 난지금 일말의 불안, 두려움마저 느낀다。

입술은 바삭 타고 혓바늘도 돋기 시작한다。〈애기〉들의 말도 소용이 닿지않는다。사방에서 쬐어오는 엄청난 소리, 바늘처럼 찔려오는 〈늙은이〉의 단한마디 『내 방에 와!』의 엄포에 한말。

그 〈늙은이〉의 목소리가 지금 나를 불안에서 질식상태로 몰아넣는다。무섭게 파고(波濤)를 일으키며 다가온다。여지없이 그 파고에 압도당할 것같은 두려움에 떤다。찬백해지는 처참한 몰골을 떠올린다。천진한 아이들은 분명히 알정하고 있었다。씨근덕거리며 분개하였다。『집어지우라고! 좀피, 도덕, 윤리……』그들은 아천석부터 욕신각신하였다。〈늙은이〉는…, 윤리, 도덕, 좀피라고 했다。〈늙은이〉가 틀림없이 말했으니까。그들은〈늙은이〉에게 삿대질하며 순서가 틀렸다고 하였다。

술을 퍼 마시면서, 슬금슬금 늙은 주모를 곁눈질로 강간하면서…그리고 그들은 거리로 나섰고, 횡단보도에이르렀다。그들은 내게 순서가 틀린 것을 증명해주겠노라고 떠들어댔다。그때 저편에서 노란 택시가 사납게 질주해 왔다。아이들은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택시는 사납게 쳐들어오고 있었다。노랗게 질려서 덤벼왔다。그 택시가 멈추리라 확신했다。강력한 발규가 파괴당하면 그보다 더 세밀하고 조직적인 발규가 탄생한다고 그는 믿은이」가 말했겠다…택시는 그대로 직주해 왔다。발끝을 스치고 지나치려했다。아이들이 모두 어쩝지 않게 오른 발을 번쩍 쳐들었다。그리고 차체에 덤벼 길질하였다。차가 멈추었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어디선가 「저런 죽일 놈…저런 죽일 놈들…」하는 욕설이 튀어나왔다。모여 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살펴보았다。운전수가 회장갑을 낀채 문을 사납게 열어젖히고 나왔다。그는 비틀거리며 서있는 아이들의 멱살을 나꿔챘다。〈애기〉들이 소리질렀다。「이거 놓치 못하겠소!」「이런 건방진 자식들…네 놈들은 따끈한 맛좀 봐야 알아!」운전사의 목출소로 갈 기세였다。구경꾼들이 길을텄주려고 물러섰다。또 어디선가 호각소리가 들려왔고, 또 다른 아무진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도망가! 한 데 덤벼버려!손해야, 손해야!」아이들은 모두 왼손을 굽힌 채 들였다。구경꾼들이 재빨리 달려있게 한발 물러섰다。아이들의 주먹진 손이 운전수의 면상을 향해 움직였다。그리고 그들은 곧목으로 줄지어 달려갔다。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또 다른 거리에서 모여들었다。「전부 다 왔어?」 잃어버린 것 없어?」그들은 비를 맞으며 머릿수를 세어보았다。그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울음소리가 빗줄기를 뚫해 그들을 쪽으로 접근해왔다。그들 중의 한 아이가 꺼억꺼억대며 울면서 걸어왔다。「야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한놈이 곡출소에 잡혀있어!」그는 악쓰며 울어댔다。꺼억꺼억대는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가슴 속에 파고들었다。아이들은네 손을 마주잡고 파출소로 갔다。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그 탐력있는 시선들은 어디를 향해, 떠났는지 모른다。백주 대로엔 흰 거품을 게게 뿜어내며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들이 그 주위에서 서성거렸다。그들은 저마다 중얼거렸다。「어떻게 될지 모른다…최소한 경범죄, 교통질서 위반, 폭행, 아아—청승맞은 운전수야…」아이들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순경이 만 두껍의 서류철을 뒤적였다。

아이들이 책상 앞으로 다가서 그 순경에게 말했다。「저 아이를 저렇게 길바닥에 놓아두어서는 않되겠어요!」「여보쇼, 우선 백차를 불러요, 이 순경!」「우리 전화 좀 쓰겠어요。」아이들이 수화기를 들었다。「아니, 이 어린이들이—그건 경비전화란 말야—!」「그럼 민간전화 좀…」그들은 전화기에 네 입을 맞추었다。〈아아, 거기 늙은이 계신가요?〉〈…〉그들은 얌전히 수화기를 놓았다。

운경지로해야 한다고 입모아 말했다。그러나, 길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는 깨어날 줄 몰랐다。싸이렌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모두 「백차가 온다!」하고제각기 소리치며 네 손을 놓고 활발이 헤어졌다。백주 대로엔 한 아이가 네스깁 식 속에 차는 것일까。한번도 그의 튼 수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웃음을 보여 내지 않았던 나와 그의 표정과의 알부가 하려는 광대같은 (운전경이 벽력같이 그것이다。)

그들 중의 벽력를 마른 걸레로 문질렀다。빗물은 그 볼록한 경면을 타고 흘러내렸고, 아이들이 인도에서 소리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넌 그 늙은이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었어? 배때기가 어떻게 생겼든? 뱀은 꿰어지지 않았단? 그들은 가시같은 이빨을 내밀며 히죽거렸다。그리고 좀 있다가 광소를 터뜨리며, 바다로 뛰어들었다。첨벙첨벙 발장구를 치며 해파리처럼 사지를 펼쩍대고 물방울을 튀겼다。그러다가 네게 달려들어 악수를 청했다。〉나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차좀 살살 몰수 없을 내고 있었던지?」나는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잡고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았다。「말이많은 권경이 구불거리며 밀려왔다。〈그들은 파도 넉편 인도에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말없이 따라왔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일생이 펼쳐지고 변해갈는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대꾸였다。그러나 내 말의 책임이 허공에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그것은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오래 머물지 않는다。

낮잠자고 있는 물고기는 파도에 실려 흘러다닌다。〈백차는 거리를 몇 번이나 더 돌았고, 광장을 한 바퀴나 돌았다。『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나는 운전경에게 연속력을 내라고 몰아세웠다。운전경은 여전히 같은 속력을 유지하며 옆에 앉은 자기 동료 순경과 몇 마디 수근거리며 허리에 찬 수갑을 만지작거렸다。〉정말 나의 대부엔 어색함이 없었다。이 말이 내가 「늙은이」에게 할수 있는 최초의 표시인이 아니었다。

나는 늙은이가 한 말을 완전히 믿고 있다。그것은 흔들리지 않으며 가슴 밑바닥에 누적되어 간다。〈빛물이 옷에 축축이 스며들었다。

꺼억 울어댄 아이도 잠이 들었나 보다。그는 누워 있는 아이의 가슴팍에머리를 대고 있었다。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아이의 옷 위로 토해낸 방울과 맥설물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차는 흔들거렸고, 두 순경은 가끔 앞으로 오는 차들을 손짓으로 비켜나라고 소리쳤다。뒤를 따라오던 다른 차들도 서행을 했다。건넌편 인도에선 아이들이 킥대며 웃었다。나는 걱정이 앞섰다。저들이 지치지 않는가。다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저들을 같이 태워 가지고 가야만 될것 같았다。그러나 차가 느닷없이 거리 한복판에 급정거를 하자 그들은 다시 몸을 솟겼다。〉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된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이다。간교한 인간에게 찬미를 아끼지 않아야만 한다고 주장해왔다。약삭빠른 놈들의 입바른 소리에 입월렸던 나다。〈술였던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다。그들에게 오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다。그러나 아이들은 두 입을 모으고인 지를 갖다대며 눈짓했다。〉보다, 그들은 인간답다。나는정말 그들처럼 살아왔다。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아가야 하는까닭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나는 내가창 안해내는 변명에 정신구조를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는가。〈나는 그대로 옹크리고 앉았다。〉「됐다!저 바다 위에 뜬 송장같은 물고기의 배때기를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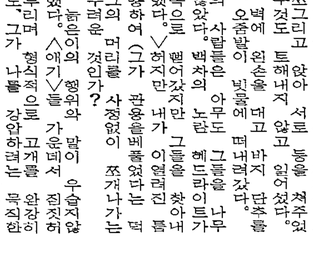
저 놈들은 동동 뜨였어。건져오면된다。

소매를 걷고, 바지가랭이를 위로 추키고 손안에 움켜쥐어! 저 놈들은 죽은것이나 다름이 없다。어서, 빨리!」〈인도로 목의 중심부인 가슴을 껴안고, 보한 팔로 그의 두 팔을 거머쥐고, 등에다 업혀, 입으로 물고 백차에 올라섰다。「어디로 가지요。」나는 정중히 운전경에게 물었다。그의 입은 꼭 다물렸다。그는 다만 시동을 걸고 있었고 의욕과 하얀 차를 움직였다。어제면 그 빨빡한 흰머리카락 사이로 자조하고 슬퍼하는 내 얼굴을 환상해서일까?그렇지만 이미 (앉았습니다。)하고 대꾸하였다。

그가 앉자하게 우물거리는 소리만 들었다。〈앉습니다……) 나는 의미를 부여시키려고 발버둥친다。어떻게 의미하도록 할 것인가? 상상력이 갇자기 번식된다。〈꺼억꺼억 울어댔던 아이가 백차 뒷광무니를 따라왔다。휘고무신을 벗어 양손에 쥐고, 빛물이 고인 길바닥을 철퍽덕거리며 뛰어왔다。「아저씨 좀 잔깐만 차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저 아이 좀 태워갈 시다。」백차는 다시 섰고, 그아이가 올라왔다。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이거 너무들 하지않소! 이렇게 의식 없는 아이를 발로 전드리며 가다니……!」 잠자코 있어!」순경이 고함을 질렀다。그리고 그들은 거리의 교통을 통제하면서 차를 몰았다。앞에가는 차를 앞지를 때마다 운전경의 허벅지가 누워있는 아이의 왼팔을 건드렸다。차에 타지못한 아이들은 전역 을어댄 아이도 잠이 들었다 보다。그는 누워 있는 아이의 가슴팍에머리를 대고 있었다。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아이의 옷 위로 토해낸 방울과 맥설물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차는 흔들거렸고, 두 순경은 가끔 앞으로 오는 차들을 손짓으로 비켜나라고 소리치며 짖들었다。나는정말 그들처럼 살아왔다。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아가야 하는까닭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나는 내가창 안해내는 변명에 정신구조를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는가。〈나는 그대로 옹크리고 앉았다。〉「됐다!저 바다 위에 뜬 송장같은 물고기의 배때기를 봐!」

저 놈들은 동동 뜨였어。건져오면된다。

소매를 걷고, 바지가랭이를 위로 추키고 손안에 움켜쥐어! 저 놈들은 죽은것이나 다름이 없다。어서, 빨리!」〈인도



캔들이 거무죽죽하게 꼬리를 이어 새빨간 결표지 주간지마다 장식되어있다。라디오 프로그램 중 연속극은 때 늦지않고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늙은이〉는 이냐하면 그는 나의 판단을 인정할 것인가? 나의 의심하는 눈초리를 또 자기자신대로 의심하여 확아보기 때문이다。머리털에서부터 신발 밑창까지。빈틈없이 들여보는 그의 눈, 그래서 분주하게 사각대며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의 머저리 같은 자식들아—!」아이들은 들리지 않는 잘매기 욱음소리를 찾으려고 눈이충혈된채 발바닥을 지켜보고있었다。

『야—이 자식들아! 거울을 보고, 네얼굴을 보고 손짓 발짓 몸짓하면 뭐해! 입방아 혼자 쌓으면 뭐해!내 말 안들려?!불통보고 몸그러진 손을 잡고, 미끈덕한 팔장을 끼고, 곁눈질로 발정하면 뭐해! 거리의 구경꾼 앞에서〈늙은이〉의 뼈마디가 소리나는 정면에서 몸짓을해! 몸짓, 몸짓…정거하면 안돼! 그렇게 되면 재미없어, 다 집어치라구! 연결하라구, 뇌회를 형신같은 손과 발로 말이야!』

나는 기를 쓰며 악을 썼다 윤전경은 나는 기를 쓰며 악을 썼다 윤전경은 좌석 위 차내 백밀려로 나를 간간히흘 〈늙은이〉는 나의 귀에 길이 기어들어갔다。 쳐보았다。나는 그의 시선에서 도달갈수없다。 나는 그의 시선에서 도달갈수없다。

아이들은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그들은 아직까지 내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한다。나는저들에게서 펼어져나가기를 원한다。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서 나를 밀칙이다。그들은 내 앞에서 웃고 있고, 〈늙은이〉를 보고싶어한다。그들은 한작미끄고 만만의 관비를 다한다。두 눈들을 한작미끄고 기다리는 이유고 〈늙은이〉의 눈초리를 보고 싶어는 눈이다。나는 창문을 닫고, 열려진 문을 닫는다。「내가 내 뇌회들에게 말할수 있는 것은 「나이 탓」때문이 아니다。그것에 속아 살 필요는 없다。인생의 슬기, 지혜, 적당한 처세같은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갈수 있는 신념은 마음대로 에 서있는 것은 아니다。뇌회들은 나를 우러러보지 않아라。무엇이 보인단 말인가? 이 뚜렷한 가죽! 〈그들자와 그들자가 강간〉하는 것뿐이 더는 보지 않을 것이다。나를 보고 싶거든 밥바라보 아가라。거기에는 바다 뛰 밥바라 어지는 소리가 남아있을 것이다。아니면 유배를 광해봐라。바다가 있고, 쭈뚤이 솟어있는 꼭。바람이 자유로이 이사다녔거 있는 꼭。뇌회들은 더 더로 자라 가。「전대로—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나는 은갓 짓눈은장단을다해보았다。

소리나는 장단을 얻단데로 늙이모아 지 앙주머니에 불룩하게 넣고 거리를 보하였다。질펑거리는 소리가 한번도 끊 는가? 그러나, 난지금까지 이 곳 주릴을 광하지 않았다。그 앞에 서성거리며 열씬거리지 않았다。그 앞에 서성거리며 힘을 찔렀 흔리는 놈들에게 통방구리물 먹인 적은 없다。채찍으로 조롱말 운동 이를 흔들게 때려주는…뇌회들은 가고자 하는 대로 달려가라, 말바라가 흩아쳐 까지。(앞앉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폐죽을 당 하는 물고기는 말하야한다。 참으로 늙은이는 늙 어갈을 비판하지도, 자랑삼지도 않지만, 늙은이의 영악함을 우리의 전용들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뇌, 알았습니다。」나는 쿤동이 기다려라。그러워 견딜 수 없었다。 두 순경은 우리 세 얼굴을 동시에 돌아보았다。그리고 한번씩 만지작거렸다。그들은 모자를 바로썼다。백차는 이에 커다란 하수구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굴러갔다。잠시후 엔진이 꺼지고 적막과 정지가 겹쳐왔다。「야—일어나라구—」앞 직석 순경이 거억대던 아이의 머리를거칠게 흔들었다。「다 왔어, 내리라구—」 윤전경이 소리치며 네게 눈짓했다。 나는 누워있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꺼꺼대던 아이는 차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두리번거렸다。

「야—일어나라구—」앞 직석 순경이 거억대던 아이의 머리를거칠게 흔들었다。「다 왔어, 내리라구—」 윤전경이 소리치며 네게 눈짓했다。 나는 누워있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꺼꺼대던 아이는 차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두리번거렸다。

「어쭈, 저 자식은 뭐하고 있는거야—네 뭐해—!」두 순경이 그아이를 끌어내려고 했다。그러나 그는 완강히 버티기며 내려오질 않으려고 했다。「뭐해—!」 나는 소리쳤다。

「어디… 내 휘고무신 어디로 갔어?」「야, 이 병신같은 여자의 욕같이구만!」두 순경은 한제하여 그를 끌어댔다。우리의 곁음을 늦어졌다。휘고무신을 찾는 아이의 두리거림이로 지체되었다。순경들은 허리에 찬 수갑을 만지작거리며 앞서갔다。「어디로 가시는겁니까?」나는 조용히 물었다。「빨리 따라오기나 해!」그들은 거다란 배뚱(白棟)의 건물로 들어섰다。

희미한 전구가 음산히 비추고있었다。「어서 여기다 내려놔!」순경들은 내게 소리치고 한편으로 몰려섰다。그들은 곧 밥테를 붙였다。「뭐해요!」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제부을입고 시늉하라고 눈짓했다。」나는 뭣결음쳤다。 쿵 쿵 등에 천문이 닿아 울렸다。「누워있는 아이와 같이 점점 멀어졌다。그는 죽은 듯 고요했다。 아이들은 백기를들고 일어섰다。그리고 밥바다에 누웠다。나는그들을 일으켰다。한팔로 안고, 또 한팔로 껴안고, 등에다 업고, 입으로 물고갔다。 그들이 아이들의 백배기에선 비늘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적정이 되었다。 「아이고 비켰다。」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네, 네!」간호원이 대답하는 소리가들려왔다。「수고하세요。」두 순경의 걸음소리가 멀어지자 어둠이 깔렸다。 꺼꺼대던 아이가 사방을 탐색한듯 방안 쩟다고 했다。그리곤 흰고무신을 찾으려가 나는 전혀 그 〈늙은이〉의 반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않았다。(내 방에 와!) 하는 그의 관용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상상해보았어야 되지않았겠는가。그러나 밥바다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린다。 아무래도 좋다。 늙은이는 이런 곳에 관심이 없을 게다。(내 방에 와!) (언제!) 〈디냐고? 그것도 여태까지 몰라어!) 그는 나의 말을 잘못 들었을리는 없다。 언제 찾아다도 그는 놀랄없이 자기 방에 있을 게다。

그가 방에 있을리라고 속속하기는 어렵지 않다。그가 이미 나를 제외한〈죽음을 알지 못하는〉천진한 아이들, 청승 맞게 울어대는 잘매기의 부리로 손가락 등이 멀들은 아이들을 언제나 〈무시〉할 수 있는 것과 같다。그들이 아무리 늙은이에게 토토한 이빨을 드러내도, 그는 자기 방이 어디 있다는 것쯤은 훤히 알고 있다。

그가 그들을 언제든지 배신할수 있는 것처럼 배신할 권리는 균등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내가 그의 관용을 배신할 수 있는것처럼 그는 속박없이 그들을 밥바다에 동굴이치고 잠적할 수 있다。그들은 밥바다에 의식이 있는 두렵다。

그의 방에 잘지 결정하기 않았다。 직접에 도착되지 않았다。도착된다。 아이들이 도착되는 무리 속으로 떠민다。〈거리 인도에선 아이들이 소리치고 있었다。「야! 바다로 갈 수 있는 놈이야,」밥 바다로!〉

審査評

吳學榮
〈同門 小說家〉

小說의 基本은 文章과 主題가 된다。文章과 主題중에 어느편이 앞이냐 하는 輕重을 가질 수는 없는 일로 文章이 안돼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테마를 지닌 作品이라도그 테마를 충분히 表現할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作品으로서 기본적 設計와 構成이 튼튼하고 「맵」은 自然科學辭典을 보는 것이다。소설은 「虛構的 現實」임을 깨닫기 바란다。

소설적 관심으로 읽을 수있는 작품은 朴順吉의 「三流家族」, 黃仁得의 「序紙」라고, 한수없다마는 이 세편이 4편을 놓고 決審에 넘어온 소설이 됐느냐 하는 점을 重視해서 읽어보았다。왜냐하면 新人이나 習作期의 작품은 작품으로서 優劣을 가리기에 앞서 作品으로서 기본적 設計와 構成이 튼튼하고 그리고 그는 완강히 버티기며 내려오질 않으려고 했다。「뭐해!」나는 소리쳤다。「어이 명신같은 여자의 욕같이구만!」두 순경은 한제하여 그를 끌어댔다。우리의 곁음을 늦어졌다。휘고무신을 찾는 아이의 두리거림이로 지체되었다。순경들은 허리에 찬 수갑을 만지작거리며 앞서갔다。「어디로 가시는겁니까?」나는 조용히 물었다。「빨리 따라오기나 해!」그들은 거다란 배뚱(白棟)의 건물로 들어섰다。

희미한 전구가 음산히 비추고있었다。「어서 여기다 내려놔!」순경들은 내게 소리치고 한편으로 몰려섰다。그들은 곧 밥테를 붙였다。「뭐해요!」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제부을입고 시늉하라고 눈짓했다。」나는 뭣결음쳤다。 쿵 쿵 등에 천문이 닿아 울렸다。「누워있는 아이와 같이 점점 멀어졌다。그는 죽은 듯 고요했다。 아이들은 백기를들고 일어섰다。그리고 밥바다에 누웠다。나는그들을 일으켰다。한팔로 안고, 또 한팔로 껴안고, 등에다 업고, 입으로 물고갔다。 그들이 아이들의 백배기에선 비늘이 떨어졌다。 아무래도 적정이 되었다。 「아이고 비켰다。」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네, 네!」간호원이 대답하는 소리가들려왔다。「수고하세요。」두 순경의 걸음소리가 멀어지자 어둠이 깔렸다。 꺼꺼대던 아이가 사방을 탐색한듯 방안 쩟다고 했다。그리곤 흰고무신을 찾으려가 나는 전혀 그 〈늙은이〉의 반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않았다。(내 방에 와!) 하는 그의 관용을 고려한다면 한 번쯤 상상해보았어야 되지않았겠는가。그러나 밥바다가 무너지는 소리만 들린다。 아무래도 좋다。 늙은이는 이런 곳에 관심이 없을 게다。(내 방에 와!) (언제!) 〈디냐고? 그것도 여태까지 몰라어!) 그는 나의 말을 잘못 들었을리는 없다。 언제 찾아다도 그는 놀랄없이 자기 방에 있을 게다。

그가 방에 있을리라고 속속하기는 어렵지 않다。그가 이미 나를 제외한〈죽음을 알지 못하는〉천진한 아이들, 청승 맞게 울어대는 잘매기의 부리로 손가락 등이 멀들은 아이들을 언제나 〈무시〉할 수 있는 것과 같다。그들이 아무리 늙은이에게 토토한 이빨을 드러내도, 그는 자기 방이 어디 있다는 것쯤은 훤히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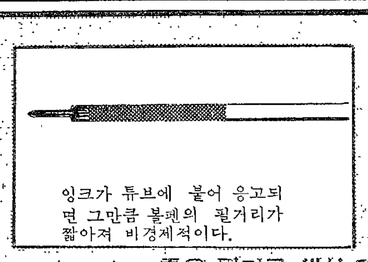
그가 그들을 언제든지 배신할수 있는 것처럼 배신할 권리는 균등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내가 그의 관용을 배신할 수 있는것처럼 그는 속박없이 그들을 밥바다에 동굴이치고 잠적할 수 있다。그들은 밥바다에 의식이 있는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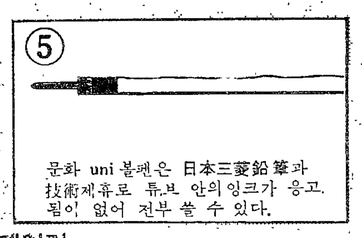
그의 방에 잘지 결정하기 않았다。 직접에 도착되지 않았다。도착된다。 아이들이 도착되는 무리 속으로 떠민다。〈거리 인도에선 아이들이 소리치고 있었다。「야! 바다로 갈 수 있는 놈이야,」밥 바다로!〉

未來의 食品을 開発하는 三養食品
이미지가 통일 (일체화)되다
食品의 綜合메이커

＊하나, 둘, 셋…모두 여섯개
편리하고 경제적인
삼양 간식라면
「삼양 간식라면」은 맛과 영양을 보강한 새로운 타입의 라-면 입니다.
한 봉지에 50g짜리 6개가 들어 있으므로 양을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라-면 입니다.
三養제인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신용의 三養제인
三養食品의집
○ 맛과 영양의 시식코너
(옛 종로국민학교자리)
代 ☎ 75-8951

신개발품
다섯가지 장점으로 문화 Uni볼펜 탄생!





※ 낙타표 브랜드의 문화연필공업(주)에서는 필생의 생命이라 할수 있는 中芯部分을 日本 三菱鉛筆(株)와 기술제휴로 이번 세계수준급 볼펜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Uni 볼펜은 필거리가 잘면서도 눈물(덩어리)이 덜 생기므로 노트나 장부 정리에 가장 알맞읍니다.

좋은 필기구 생산 메이커
文化鉛筆工業株式會社
낙타표
本社: 金州市 校洞2街 79 Tel. (2)4190~1
서울연락소: 中区·北倉洞 81. Tel. (22)4652

錢穆의 文化觀

「文化史 大系」 「中國文化史導論」

物質文明이 極度로 發達한 오늘날 經濟的 不況이 닥치자 정신적 不安이 휩쓸어 세계는 物質에 대한 懷疑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이러한 物質의 不足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정신적자세의 확립일 것이며、이러한 정신적자세확립은 또한 올바른 文化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원래 物質은 外部的 蓄積에서 오는 것이므로 文明을 낳지만 精神은 內部的 涵養이므로 文化를 낳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西歐文明을 한없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物質的 生活手段이 편리하기 위해서이지 그들의 內部的 精神文化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또한 精神文化는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그가닭은 物質의 이용은 洋의 東西가 다를 바 없지만 精神的 자세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見解는 文化를 이해하려는 분이 中國의 碩學 錢穆敎授다。그는著書 文化學大系와 中國文化史導論에서밝히고 있다。(文化學概論이라하여 번역했고 中國文化史導論은 筆者가 中國文化史라하여 飜譯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두著書를 中心으로 그의 文化觀을 整理하여 우리의 精神的 餘裕를 가져보려한다。

<師範學部 敎授> 李鍾燦

精神文化의 理解 强調
中國文化의 特性은 農耕에서
地理的 背景으로 文化 分析

모든 문제는 文化問題에서 산출되는 것이요、모든 문제는 문화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라 하여 文化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삼았다。文化란 바른 류생활이므로 어떤 개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 대중적인 류생활을 가리키는 말이다。따라서 화는 하나의 종합체라 하였다。다시 러한 종합적 인류생활을 세 단계로분류하여 보았다。

첫째 물질적 人生이라하여 자연적인 생이니 경제적 인생이니 하여 의식주 등 人生이 맨 먼저 경험해야하는 첫 단계로 이것이 문화의 제1단계라 했다。둘째는 社會的 인생이다。이것은인간대 인간으로 많은 進化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文化의 제2단계라 하였다。

세째는 精神的 人生이다。관념이나 理性的 취미에 속한 宗敎 文學 藝術등 人類學的、考古學的、鑛物學的 일부수행이 主가 되어야한다。

이러한 단계의 人生을 다시 그 生活類型으로 갈라 세가지 유형으로分類하여 遊牧·農耕·商業이라 하고 이것을 다시 그의 生活方式의 類似點에서 遊牧과 商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하여 二大文化圈 안에 두었다。이러한基準點으로 中國文化를 보아 農耕文化를 보아 農耕文化의 대표적 특징이 그의 中國文化 構論이다。이 두 유형의 문화적 對立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대립을 이룬다하더라도 거기에는 각각 文化의 일곱가지 요소가 있으니、經濟、科學、政治、藝術、文學、宗敎、道德이 그것이다。따라서 中國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치、도덕、문학、예술에 있고 西歐에서 중히 여긴 것은 경제 과학 종교였고、印度에서 소중히 여긴 것은 종교 예술 문학에 있다。이 와같은 모든 요소를 가지면서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므로 西歐人이 外向的 정복인과 학에다 服服을 요구하는 종교정신까지를 바라니 이것은 하나의 內在的 보순을 안고 있고 中國에서는 科學과 거리가 너무 멀기때문에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단점이자 특성은 文化가 인류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자연 지리적 생활환경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분석해 본 것이 그의 中國文化觀이다。

그는 中國文化의 특성을 農耕에서온다고 보았다。본히 말하는 黃河文明이라하는 黃河는 支流가 만고 支流가 主流와 합쳐지는 三角洲 일대가 교통이나 灌漑가 편리하여 農耕에 적합했으며 人口集中이 쉬워 여기에 農耕에 적합한 文化가 탄생하였다。

氣候도 溫帶에 속하기 때문에、생활하기가 편했다는 것이다。이에비해 西歐는 큰 강의 유역이 넓기는하나 農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연 遊牧이나 商業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遊牧이나 商業의 시초는 平原이 아니라 海岸이나 島嶼지방에서 일어남 수 밖에 없으니 이것은 海賊이나 隊商이 生活手段이 편리하기 위해서이지 決코 이러한 正道를 준수하여 바른 사람이 되면 나도 天堂이나 極樂에 갈 수 있는 것이고 地獄에 떨어지는 것은 없다。

중국은 하나의 農業國으로 일찍부터 統一된 國家의 形態를 갖추고있어 商業이란 다만 對內的 通商이지 貿易이라 말할 수 있는 對外性이 없었다。그러나 西歐의 여러나라에서는 對外的 通商에 重要性이 있었다。그러므로 東洋에서는 商業勢力의 지나친팽창은 法令으로 억제하였다。

科學만 하더라도 東洋에 科學的 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을 위한 기계생산에 집착할 필요가 많지않았다。자연에 順應하여 農地의 耕作으로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높이는 예술적 방면으로 과학을 이용하게 되었다。즉 생활후민의 흥을 돋우는 玩賞物을 만드는 것이 과학정신의 발휘였다。

그러므로 工藝라는 말은 있어도 工業이란 말이 없다。다시 말하면 오늘 톱질은문명을 발달시킨 것과같을 科學이 應用될만한 기회가 없었다。

또한 西歐人이 이상으로 여기는 自由란 말도 東洋人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었다。西歐人은 外向的 공간적이기때문에 彼我의 對立이 생기고 정복과 극복이 늘 뒤따른다。그러므로 소아의보호를 위한 자유와 공간적 접단을위한 경쟁이 있게 되었다。

그들의 內部的 精神文化는 물질의 이용은 洋의 東西가 다를 바 없지만 精神的 자세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見解는 文化를 이해하려는 분이 中國의 碩學 錢穆敎授다。그는著書 文化學大系와 中國文化史導論에서밝히고 있다。(文化學概論이라하여 번역했고 中國文化史導論은 筆者가 中國文化史라하여 飜譯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두著書를 中心으로 그의 文化觀을 整理하여 우리의 精神的 餘裕를 가져보려한다。

大學人의 對話

探險 學術性을 띤 活動 바람직
探險은 未知에의 끝없는 挑戰
生과死 교차되는 「드라마」

▲金敎授=探險이란 未知의 것에 對한 끝없는 도전이라고 말할수 있읍니다。南北極 탐험과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의 탐험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歷史的 探險이고、제三의 極地라 불리우는 히말라야 頂上등반등 탐험의 種類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崔宇勝=그럼 것이 모두 나약한 人間의 自然에 對한 도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그럼데 探險과 探査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金敎授=별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하겠죠。그러나 굳이 語意를 따진다면 探險이 단순히 險所를 도전적 심리로 가보는 것이라면 探査는 復合的으로 한발 더 나서서 조사하고 캐낸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金鳳信=探査과정에서 연구조사해야 할 대상은 地質學的、生物學的、人類學的、考古學的、鑛物學的인 일부수행이 主가 되어야한다。물론 산을 찾아 다니다보면 各地方의 동물명칭에서 흥미있는 民俗學的 硏究素材를 발견할수 있읍니다만、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것 같읍니다。그렇게 볼때 人間의 意志를 개발하고、險所를 찾으려는 人間本能을 充足시키는 探險行爲 그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것 아닐까요?

▲金敎授=登山이란 洞窟·水中探險이던 다 野性=뒤에서 자세히 설명하죠=으로 돌아가려는 부단한 행위임에는 다를게 없읍니다。그러나 水中이나 洞窟探險은 「가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기때문에 늘 學術的인 面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물산의 경우는 정상에 오르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통아가고자하는 욕심이 나오고있읍니다。

▲崔宇勝=敎授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未知의 것에 대한 도전이 探險이라고 하셨는데…어떤 사람이 펙목을 타고 太平洋을 건넜는데 이것은 探險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金敎授=對象地는 未知가 아니나 펙목을 이용한 方法이 미지니 探險이라고 말할수있읍니다。

對象이 미지이면 方法이 未知이면 그미지에 대한 熱情 愛情을 찾아 헤매는것을 곧 탐험이할수 있읍니다。

▲金鳳信=제가 水中探險을하게된 動機는 단순히흥미로운 學術的 探險을 하려고 했읍니다。사람이 知性人들로 하여금 탐험으로 몰아 넣는 心理的 理由일겁니다。이것이 곧 探險精神과도 통하는 것이죠。

▲崔宇勝=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洞窟內部에서의 조난에 대비、준비만 불을 모두 끄고 엄마간전진하는 훈련을 하고있읍니다。물론 쉽지는 않더군요。

▲金敎授=그것이 곧 探險精神이죠。

▲崔宇勝=探險은 어느 것이나다 같읍니다만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읍니다。극단적으로는 죽음까지도 意識하지 않을 수 없어요。그러나 自己生命의 責任感을 가지고 신중히 未知의 것에 다가서야 합것입니다。

▲金敎授=探險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보다 정신력과 체력이 나은것은 반드시 아닙니다。信念과 誠實性、勇氣가 절대권요하죠。

生과 死가 밀착되는 장소=그곳이 바로 探險場所이고、「드라마」가 있는 곳이죠。安全地帶만 찾아 다니고、生과、死를 뚫고 나가는 용기가 없으면、보람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孤高한 生命의 충만감을 느끼면서 人間으로서 大地에 서는 보람은 극적인 탐험을 마친 뒤의 喜悅 아니겠읍니까?

▲崔宇勝=아주 어려운 探査活動에 맛보는 희열이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對話者
敎授: 金長好 (師範大 國敎科)
學生: 崔宇勝 (工科大 電子 3)
金鳳信 (文理大 物理 2)
場所: 敎授硏究室

世界의 名著散策

精神文化의 理解 强調
中國文化의 特性은 農耕에서
地理的 背景으로 文化 分析

文化의 第三 단계라 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의 人生을 다시 그 生活類型으로 갈라 세가지 유형으로分類하여 遊牧·農耕·商業이라 하고 이것을 다시 그의 生活方式의 類似點에서 遊牧과 商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하여 二大文化圈 안에 두었다。이러한基準點으로 中國文化를 보아 農耕文化를 보아 農耕文化의 대표적 특징이 그의 中國文化 構論이다。이 두 유형의 문화적 對立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대립을 이룬다하더라도 거기에는 각각 文化의 일곱가지 요소가 있으니、經濟、科學、政治、藝術、文學、宗敎、道德이 그것이다。따라서 中國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치、도덕、문학、예술에 있고 西歐에서 중히 여긴 것은 경제 과학 종교였고、印度에서 소중히 여긴 것은 종교 예술 문학에 있다。이 와같은 모든 요소를 가지면서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므로 西歐人이 外向的 정복인과 학에다 服服을 요구하는 종교정신까지를 바라니 이것은 하나의 內在的 보순을 안고 있고 中國에서는 科學과 거리가 너무 멀기때문에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단점이자 특성은 文化가 인류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자연 지리적 생활환경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이러한 지리적 배경으로분석해 본 것이 그의 中國文化觀이다。

그는 中國文化의 특성을 農耕에서온다고 보았다。본히 말하는 黃河文明이라하는 黃河는 支流가 만고 支流가 主流와 합쳐지는 三角洲 일대가 교통이나 灌漑가 편리하여 農耕에 적합했으며 人口集中이 쉬워 여기에 農耕에 적합한 文化가 탄생하였다。

氣候도 溫帶에 속하기 때문에、생활하기가 편했다는 것이다。이에비해 西歐는 큰 강의 유역이 넓기는하나 農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자연 遊牧이나 商業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遊牧이나 商業의 시초는 平原이 아니라 海岸이나 島嶼지방에서 일어남 수 밖에 없으니 이것은 海賊이나 隊商이 生活手段이 편리하기 위해서이지 決코 이러한 正道를 준수하여 바른 사람이 되면 나도 天堂이나 極樂에 갈 수 있는 것이고 地獄에 떨어지는 것은 없다。

중국은 하나의 農業國으로 일찍부터 統一된 國家의 形態를 갖추고있어 商業이란 다만 對內的 通商이지 貿易이라 말할 수 있는 對外性이 없었다。그러나 西歐의 여러나라에서는 對外的 通商에 重要性이 있었다。그러므로 東洋에서는 商業勢力의 지나친팽창은 法令으로 억제하였다。

科學만 하더라도 東洋에 科學的 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을 위한 기계생산에 집착할 필요가 많지않았다。자연에 順應하여 農地의 耕作으로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높이는 예술적 방면으로 과학을 이용하게 되었다。즉 생활후민의 흥을 돋우는 玩賞物을 만드는 것이 과학정신의 발휘였다。

그러므로 工藝라는 말은 있어도 工業이란 말이 없다。다시 말하면 오늘 톱질은문명을 발달시킨 것과같을 科學이 應用될만한 기회가 없었다。

또한 西歐人이 이상으로 여기는 自由란 말도 東洋人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었다。西歐人은 外向的 공간적이기때문에 彼我의 對立이 생기고 정복과 극복이 늘 뒤따른다。그러므로 소아의보호를 위한 자유와 공간적 접단을위한 경쟁이 있게 되었다。

그들의 內部的 精神文化는 물질의 이용은 洋의 東西가 다를 바 없지만 精神的 자세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見解는 文化를 이해하려는 분이 中國의 碩學 錢穆敎授다。그는著書 文化學大系와 中國文化史導論에서밝히고 있다。(文化學概論이라하여 번역했고 中國文化史導論은 筆者가 中國文化史라하여 飜譯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두著書를 中心으로 그의 文化觀을 整理하여 우리의 精神的 餘裕를 가져보려한다。

物質은 文明, 精神은 文化
東西洋 價値基準 달라
容納·包容등이 文化발전 동기

同窓會 소식

法曹同門會 75年定總
會長에 朴柱寅 등문

法曹同門會(會長=金榮泰) 의75년도定期總會가지난 20일 시내 수정여사 母校 李瑄根總長과 本會 崔載九會長、法曹界 등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새로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黃石淵(61·大學院·서울영사지법 부장판사)▲명예회장=韓沃印(65·大學院·대검찰청 특별수사부장)▲會長=朴柱寅(59·法·서울高檢검사)▲副會長=金榮泰·홍두표·김동정▲총무=조경근。

經濟科 同期會 定期總會盛況

經濟科 제9회同期會定期總會가 지난 21일 시내 「라 로마나」에서 母校 李瑄根총장、本會 崔九會長과 同門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會長에 崔元植同門이 유임되었다。

▲崔宇勝=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물론 산을 찾아 다니다보면 各地方의 동물명칭에서 흥미있는 民俗學的 硏究素材를 발견할수 있읍니다만、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것 같읍니다。그렇게 볼때 人間의 意志를 개발하고、險所를 찾으려는 人間本能을 充足시키는 探險行爲 그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것 아닐까요?

▲金敎授=登山이란 洞窟·水中探險이던 다 野性=뒤에서 자세히 설명하죠=으로 돌아가려는 부단한 행위임에는 다를게 없읍니다。그러나 水中이나 洞窟探險은 「가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기때문에 늘 學術的인 面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물산의 경우는 정상에 오르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통아가고자하는 욕심이 나오고있읍니다。

▲崔宇勝=그러면 그것은 결국 探險精神이 아니겠읍니다。

▲金敎授=探險精神이 있어야 할 대상은 地質學的、生物學的、人類學的、考古學的、鑛物學的인 일부수행이 主가 되어야한다。

▲崔宇勝=探險은 어느 것이나다 같읍니다만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읍니다。극단적으로는 죽음까지도 意識하지 않을 수 없어요。그러나 自己生命의 責任感을 가지고 신중히 未知의 것에 다가서야 합것입니다。

▲金敎授=探險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보다 정신력과 체력이 나은것은 반드시 아닙니다。信念과 誠實性、勇氣가 절대권요하죠。

生과 死가 밀착되는 장소=그곳이 바로 探險場所이고、「드라마」가 있는 곳이죠。安全地帶만 찾아 다니고、生과、死를 뚫고 나가는 용기가 없으면、보람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孤高한 生命의 충만감을 느끼면서 人間으로서 大地에 서는 보람은 극적인 탐험을 마친 뒤의 喜悅 아니겠읍니까?

▲崔宇勝=아주 어려운 探査活動에 맛보는 희열이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휴게실

새 東國축구를 이끌어 나갈
李英律 코치

優秀選手 스카웃이 重要
"强한體力과 테크닉 키울터"
合宿所 施設 改善 아쉬워

『승패를 달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느낍니다。』

東大축구의 재건을 위해 이번에 새로 本校축구부를 맡아 지도하게된 李英律(38세) 코치의 첫 소감이다。

그동안 본교 축구부가 어떠면에서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근년에와 스카웃활동의 저조로인한 우수선수의 不足、지도층 빈약으로 인한 훈련및전술의 부족에있다 기인한것』이라고 토로한다。

他大學이나 實業팀의경우 매년 유망주를 스카웃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비해 本校는 스카웃활동이 너무나 부진하여 멤버구성에 만전을 기할 수 없었으며 또한 지도층의 빈약은 선수육성에 큰 장애가 되었다。

앞으로 축구부의 지도방안에대해서는 『모든 스포츠가 강인한 체력위에 테크닉이 가미되야 할 것』이라고 축구도 이 12月부터는 벗어날 수 없어 초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들어갈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2月부터는 테크닉과 새로운 패턴을 익혀 내년 4月에 열리는 春季大學리그 전등 76年度 게임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한다。

李코치의 부임에 뒤이어 새로 보강된 선수단과 李코치의 영향으로 이 팀은 東國축구의 명맥을 계승하는 內向的 大家族이나 西歐의 商業文化는 外向的 核家族으로 발전한다。中國史上 상업의 번영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西歐의 상업이라는 그 발황이 달랐다。

중국은 하나의 農業國으로 일찍부터 統一된 國家의 形態를 갖추고있어 商業이란 다만 對內的 通商이지 貿易이라 말할 수 있는 對外性이 없었다。그러나 西歐의 여러나라에서는 對外的 通商에 重要性이 있었다。그러므로 東洋에서는 商業勢力의 지나친팽창은 法令으로 억제하였다。

科學만 하더라도 東洋에 科學的 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을 위한 기계생산에 집착할 필요가 많지않았다。자연에 順應하여 農地의 耕作으로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높이는 예술적 방면으로 과학을 이용하게 되었다。즉 생활후민의 흥을 돋우는 玩賞物을 만드는 것이 과학정신의 발휘였다。

그러므로 工藝라는 말은 있어도 工業이란 말이 없다。다시 말하면 오늘 톱질은문명을 발달시킨 것과같을 科學이 應用될만한 기회가 없었다。

또한 西歐人이 이상으로 여기는 自由란 말도 東洋人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었다。西歐人은 外向的 공간적이기때문에 彼我의 對立이 생기고 정복과 극복이 늘 뒤따른다。그러므로 소아의보호를 위한 자유와 공간적 접단을위한 경쟁이 있게 되었다。

그들의 內部的 精神文化는 물질의 이용은 洋의 東西가 다를 바 없지만 精神的 자세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見解는 文化를 이해하려는 분이 中國의 碩學 錢穆敎授다。그는著書 文化學大系와 中國文化史導論에서밝히고 있다。(文化學概論이라하여 번역했고 中國文化史導論은 筆者가 中國文化史라하여 飜譯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두著書를 中心으로 그의 文化觀을 整理하여 우리의 精神的 餘裕를 가져보려한다。

랜키타 개인지도
키다·드럼 초보자 환영
국민은행화양지점 맞은편

서예
펜글씨·붓글씨·한문기초부터 철저 개인지도
종로1가정동장 ㉕3771 무파수제과2층 ㉓6717
관인 인성서예학원

육해공군 지원행정병모집
육군: 17—26세중졸이상 공군: 17—23고졸이상
해군·해병: 17—23세중졸이상(해병국졸이상) 각군소정의 교육후 희망시기에 단독입대 각군위촉에의거모집함 상세한것은 직접문의요
종로1가 배스정류장 무파수제과 2층
사단법인 대한글씨검정교육회 ㉕3771 ㉓6717

중장비 정비 운전
▲중기수리 ▲페이로다 ▲지게차 ▲크레인 ▲불도자 ▲포크레인
※면허대비특강 ☆주·야간반
주소…서울용산구 남영동六二번지(남영극장맞은편남영우체국옆)
관인 신흥건설기계기술학원

4년卒業生의 꿈
어렵다고? 천만에 이직장을 잡으시요!
Why not? Get That Job!
卒業班 職場實務英語+英作
담당 교수 金奎滿 著者
①職場實務英語著 ②美國生活百科著者
◎受講後勤務할 職場
①무역, 오파, 외국대리점 ②外國商事, 外國公館 ③개인무역, 여행사 ④신문사, 방송국, 외국신문 잡지 프리랜서 부업등
◎受講對象者
①商大系(경영·무역·경제·상과) 卒業班 ②英文學科生最適특강 ③政治(外)科 卒業班 ④外國商事비서직願生
◎講座內容
①Personal Paper work English ②Government Paper Work English ③Business English ④Office Paper Work English ⑤기타 이력서 英作부터 무역실무, 국제계약 英語에 이르는 High Salarymen을 爲한 職場實務中心 卒業記念最終특강 코스인 國內 最初 Unique style 강좌임
종로 2가 네거리삼화 고속건너편
상담전화 (25) 8115 8116 8117
관인 I.L.I 부설 職場實務英語硏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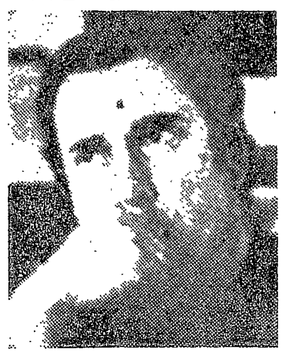
名敎授 名講義
本學院은 政府代行 海外 여행자에 對한 日本語 語學能力 檢定시험 위촉 公認 기관임
I.L.I 학원
—外國語 專門—
英語會話 日本語 中國語 西班牙語 獨·佛語
TIME강좌特講
◎英文독해력과 어휘 整理를 爲한 大學生필수과정班
◎시간 7:30~8:30. a.m 6:00~7:00. p.m
◎강사: 강민敎授(귀국강좌)
AFKN 청취 특강
◎국내초유의 Joint-Lecture System
◎3개월이면 90% 청취可
◎프린트 교재 무료배부
위치: 종로2가네거리 삼화고속 너건편 ㉕8115·8116㉕8117
개강: 12월1일

공군 지원병 모집
원동기
관인 제일원동기학원 ㉔3293 3292유장북편
●고학기술처 인정(수료후 1급응시자격 부여)
원동기취급기능사 서울지구시험대비 (현재 접수중)
보일러 위험물 열관리 배관용접
대학생을위한방학특강
콤퓨터 교육
1. 교육기간 1차: 12월1일~1월31일 2차: 12월15일~2월14일 3차: 1월5일~2월28일
2. 교육내용 EDPS개요 COBOL FORTRAN (ASSEMBLER)
3. 수강시간 오전·오후·야간 3시간씩 (선택)
4. 수강료 위의 기간에 한하여 특별할인
5. 강사 각과목 권위저술자 직접지도
관인 서울콤퓨터학원
중구태평로1가64 (국제극장옆감리회관1층)
수강문의 직통 ㉔0221
初心환영 ▲小心不安 웅변스쿨 말더듬 노이로제 성격교정 不安 不眠
요가
惡亦非性 習面社的 矯恐交苦 上佛的 포퇴 안포
종로2가네거리 ㉕ 태극당제과앞 관인 4층빌딩 2677 신(실리) 학㉗1653 생(별론) 원㉗3764
원장 이하영
본보 광고 하명은 ㉕9155로
대학생 敎養타자
College Typing Course
◎등기 방학 특별 Course <수시접수중>
From Basic to Business
본학원의 특징
△서구식 시설을 갖추고 어떤 초보자라도 본 학원의 과학적인 진도표에 의해 1급타자수가 되게 개인지도함
△최신타자기·에레베이터보유·스팀난방
△권위강사·시간자유선택·교통편리
※Group입학 수강료할인
◎각종 Course
1個月속성·해외유학·이민·공무원·각종시험대비 Course
종로2가 네거리 삼화고속옆 경영빌딩內
內外打字學院 ㉔4089 學院長 金在坤

해롤드 핀터의 作品世界

淑 金種

實存의 根源을 추구 共感된 創造性 발휘


◇劇作家해롤드핀터

그의 첫작품 「房」이후 주요한 작품으로는 「생일파티」 「귀향」 「옛날」 등의 장막과 「코렉션」 「럽웨이터」 「가벼운痛症」 등의 단막이 있다. 그의작품을 일관해서 누드러진 것은 인생의 부조리에대한 작가자신의 독특한인식방법을 가졌고 개성적인구사과 화술을 개성적으로 통박하고 인내와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꽁포는 현이상학적인 추상적 恐怖라기 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매우현실적이고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그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베케트」와 「카프카」의 이질성을 발견할수 있다.

그렇다고 핀터가 자연주의 작가는 아니다. 이점은 그의 예술의 역설이다. 그의 대사와 인물들은 매우 사실적이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不合理·不確實·詩的모호성이다. 그의 작품에는 사실적인 연극에서 볼수있는 인물의 배경·동기가 전혀설명되어있지 않고 심지어 그신분조차 알수없다. 그래서 그의작품은 난해하고 모호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점에대한작가의견해는 다음과같다. 「전통적 연극에서는 作家가모든것을 일종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대체 현실이란 그자체가 알송달송한 것이어서 그어떤 사물도 이렇다하고 명확히 일종할수는 없는것이다. 현대인은 너무나 복잡하고 심리구조도 너무나복잡하고 모순에 엉켜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동했을경우 그원인이나 동기를밝혀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핀터는 보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의 對話 역시 아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뇌를 그리는 한편 휴식력 劇의 배경이나 대화는 매우 寫實的이지만 이러한 표현밑에는 보다 심각한 苦惱가 잠려있고 대화 중간에 사이를 많이 두는 것도 이들 두 作家와 공통적이다.

이렇게 불편 핀터는 체홉을 일종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대체 현실이란 그자체가 알송달송한 것이어서 그어떤 사물도 이렇다하고 명확히 일종할수는 없는것이다. 현대인은 너무나 복잡하고 심리구조도 너무나복잡하고 모순에 엉켜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동했을경우 그원인이나 동기를밝혀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핀터는 보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의 對話 역시 아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뇌를 그리는 한편 휴식력 劇의 배경이나 대화는 매우 寫實的이지만 이러한 표면밑에는 보다 심각한 苦惱가 잠려있고 대화 중간에 사이를 많이 두는 것도 이들 두 作家와 공통적이다.

이렇게 불편 핀터는체홉을 일종할수는 있으나 언제나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리얼한 사이에 명확한 한계선이 있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진리와 거짓의 한계가 막연한것 처럼 리얼한 것과 리얼하지 않은것 사이에 있는것은 아니다. 리얼한 것과 리얼하지 않은것